2026년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국제 추수 감사절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아가에 묘사된 이기는 생활

메시지 1

아가의 첫 번째 단계 —
만족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도록 이끌림

성경: 아 1:1–2:7, 요 14:21, 23, 21:15–17

(아 1:1–2:7) 솔로몬의 아가. 2"그이 입의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해 주었으면! /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까닭이랍니다. 3당신의 바르는 기름은 향기가 좋고 / 당신의 이름은 쏟은 관유 같아요. / 그러하기에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한답니다. 4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좇아 달려가렵니다— / 왕께서 나를 그분의 내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 우리는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높이 찬양하렵니다. /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답니다. 5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난 비록 검으나 사랑스럽답니다, / 게달의 천막처럼 솔로몬의 휘장처럼. 6내가 검다 하여 나를 흘겨보지 말아요. / 햇볕이 나를 그을려 놓은 탓이니까요. /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화내며 / 나를 포도원지기로 만들었답니다. / 하지만 내 포도원은 지키지 못하였어요. 7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말해 주세요. 당신은 어디서 양 떼를 먹이시나요? / 한낮에는 어디서 양 떼를 쉬게 하시나요? / 어찌하여 나는 당신 벗들의 양 떼 곁에서 / 얼굴이 가려진 이처럼 되어야 하나요?" 8"여인들 중 가장 어여쁜 이여, / 그대가 알지 못한다면 /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 목자들의 천막 곁에서 / 그대의 어린 염소들을 먹이도록 하오." 9"내 사랑이여, 나 그대를 / 파라오의 병거들 가운데 있는 암말에 비유하리다. 10장신구로 땋은 머리가 드리워진 그대의 두 뺨과 / 보석 꿰미들로 꾸며진 그대의 목이 사랑스럽기만 하오." 11"우리가 그대에게 은장식을 박은 / 금사슬을 만들어 주리다." 12"왕께서 상에 앉아 계실 때에 / 나의 나드가 그 향기를 내뿜었어요. 13내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몰약 주머니 / 밤새 내 젖가슴 사이에 있지요. 14내 사랑하는 이는 내게 / 엔게디 포도원들에 있는 고벨화 송이랍니다." 15"오, 아름다워라, 내 사랑이여! / 오, 아름다워라!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다오." 16"오, 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아름답고 참으로 감미로워요. / 참으로 우리의 침상은 푸르답니다. 17우리 집의 들보는 백향목 / 우리의 서까래는 편백이랍니다." 2:1"나는 샤론의 장미 / 골짜기의 백합화랍니다." 2"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처럼 / 내 사랑이 딸들 가운데 그러하여라." 3"수풀 속 나무들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 내 사랑하는 이가 아들들 가운데 그러하시답니다. / 그이 그늘에 나 기뻐 앉아 있었고 / 그이 열매 내 입에 달콤하였답니다. 4그이가 나를 연회장으로 이끄니 / 내 위에 나부끼는 그이 깃발은 사랑이었지요. 5건포도 과자로 나의 기운을 북돋아 주고 / 사과로 나를 신선하게 해 주세요. / 나 사랑 때문에 병이 났으니까요. 6그이 왼손은 내 머리 밑에 있고 / 그이 오른손은 나를 감싸 안는답니다." 7"예루살렘의 딸들이여, / 내가 그대들에게 가젤이나 들의 암사슴을 걸고 맹세하게 하니 / 내 사랑이 원할 때까지는 / 그녀를 흔들거나 깨우지 마오."

(요 14:21) 나의 계명들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요 14: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요 21:15–17)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먹이십시오." 16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17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Ⅰ. '솔로몬의 아가'는 그리스도의 연인의 영적인 역사를 시적인 표현과 단어와 어구로 서술해 준다. 아가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의 생활을 시적인 형태로 놀랍고도 생생하게 묘사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도록 개인적인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통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체험하는지를 밝혀 준다 — 아 1:1, 계 19:7, 비교 왕상 4:32.

(아 1:1) 솔로몬의 아가.

(계 19:7)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왕상 4:32) 그는 잠언 삼천 구절을 말하였으며, 그의 노래는 천다섯 편이었다.

A. 아가는 전도서와 대조된다.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의 모든 긍정적인 체험과 부정적인 체험이 '허무 중의 허무'라는 것을 보여 준다 — 전 1:2-3.

(전 1:2-3) 전도자가 말한다. "허무 중의 허무, / 허무 중의 허무라. 모든 것이 허무여라." 3사람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이 / 무슨 유익이 있는가?

B. 아가는 그리스도께서 인생에서 노래 중의 노래, 만족 중의 만족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것은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허무 중의 허무라는 것과 대조된다.

C. 어떤 것이 아무리 좋고 뛰어나고 놀랍고 경이로울지라도 그것이 옛 창조물에 속한 것인 한, '해 아래' 있는 허무 중의 허무의 일부이며 '바람을 잡는 것'(전 1:14)이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인간 삶의 영역이 비참한 종말을 맞는 타락한 사람을 두고 부르는 만가와 같다는 것이다.

(전 1:14) 나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참으로 모든 것이 허무요 바람 잡는 것이다.

D. '해 아래' 있지 않고 하늘들에 있는 새 창조물만이 허무가 아니라 실재이다.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뿐이다' — 갈 6:15.

(갈 6:15) 이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뿐이기 때문입니다.

1. 옛 창조물에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없지만,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믿는 이들로 구성된 새 창조물에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있다 — 고후 5:17, 요 3:15, 벧후 1:4.

(고후 5: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요 3:15)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벧후 1: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2. 따라서 바울은 우리에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골 3:1)라고 격려하였으며,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2절)라고 격려하였다.

(골 3:1)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골 3:2)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E.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사람 안에 영을 지어 주심으로 사람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담을 수 있게 하셨다(창 1:26, 2:7). 또한 전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두셨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영원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해 아래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대대로 운행하는 신성하게 심어진 일종의 목적 있는 감각'(3:11, 확대역

성경)이다.

(창 1:26)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창 2:7)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창 3:11)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시자,

1.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성공을 거둘 때마다 우리 안에서 공허함이 느껴진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사람 안에 영원한 것들에 대한 열망이 있음을 가리킨다.
2.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안에 그러한 것들을 찾는 열망을 주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다 — 비교 행 17:26–27.

   (행 17:26–27)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만드시어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이 살 시대와 거주할 경계를 미리 정하셨는데, 27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다면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3. 인생에서 거둔 어떤 성공이든 그 모든 누림에는 끝이 있을 것이다. 육신의 생명에 속한 온갖 물질적인 것들에는 '끝 날'이 있다 — 요 7:37.

   (요 7:37)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시어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4. 일시적인 것들로는 결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곧 노래 중의 노래이신 그리스도로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목적의식을 만족시킬 수 있다 — 고후 4:18.

   (고후 4: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Ⅱ.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영적인 원칙이 아가에 나오는 추구하는 이의 이기는 생활의 첫 번째 단계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후에 나오는 공과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의 공과들이 더 깊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 아 1:2–2:7.

A. 거듭남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우리 안으로 가져온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은 이 유전자 안에 있다 — 요일 3:9, 막 4:26.

(요일 3:9)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마다 죄짓는 것을 일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막 4:26)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서

B. 원칙적으로, 아가에 나오는 모든 영적인 높은 요점들은 이미 우리의 것인데, 이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유전자이자 하나님의 씨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미 우리 안으로 분배되었고 우리 안에서 자랄 것이다 — 롬 8:10, 골 2:19.

(롬 8: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골 2: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Ⅲ. 생명은 인격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이 인격을 누리는 다른 길이 없다 — 막 12:30, 고전 2:9.

(막 12:30)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고전 2:9) 오직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이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는 것들이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이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A. 우리가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여 온종일 그분을 생명나무로 누린다면, 교회는 그 상태가 어떠하든 즉시 우리에게 낙원이 된다 — 계 2:4, 7, 고후 12:4과 각주 1, 눅 23:42-43.

(계 2:4)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고후 12:4)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말, 곧 사람으로서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후 12:4 각주 1) 낙원은 음부의 즐거운 부분으로서, 아브라함과 모든 의인의 영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며(눅 16:22-23, 25-26), 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때까지 머무셨던 곳이다(눅 23:43, 행 2:24, 27, 31, 엡 4:9, 마 12:40). 이 낙원은 천년왕국 안에서 새 예루살렘이 될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낙원과는 다르다. 이 단락에서 사도는 그가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게 크다고 말했다. 우주에는 주로 세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하늘들과 땅과 땅 아래 음부(엡 4:9)이다.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던 사도는 땅의 일들을 알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늘들의 일도 알지 못하고 음부의 일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사도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두 장소로 이끌려 갔고, 감추어진 이러한 구역들에 대한 이상과 계시를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는 우주의 이 두 끝부분을 언급했다.

(눅 23:42-43) 그리고 그가 "예수님,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니, 43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그대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B.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은 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접촉해야 한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많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그분의 현재의 임재, 현재의 인격이 필요하다. 우리의 주 예수님은 '지금 분배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 요 8:12, 빌 3:13-14.

(요 8:12)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빌 3:13-14)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14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C.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은 아들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오셔서 아들을 사랑하는 이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하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요 14:21) 나의 계명들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요 14: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1. 우리는 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며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과 교통을 나누며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음을 뜻한다.
2.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

들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곧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실재가 되게 하실 때,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하신다 — 비교 고전 2:9-12.

(고전 2:9-12) 오직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이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는 것들이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이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10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11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12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그 영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D. 각 사람의 경우에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분의 인격에 대한 이상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상이 없이는 전진할 수 없다 — 행 26:14-19, 고후 4:6-7, 빌 3:8-10상, 13, 비교 신 4:25.

(행 26:14-19) 우리 모두가 땅에 엎어졌을 때에 내가 한 음성을 들었는데,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 돋친 막대기에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통이다.'라고 하시기에, 15내가 '주님, 누구십니까?'라고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16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 줄 일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17내가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구출하여 그들에게 보내는데, 18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19아그립바왕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고후 4:6-7)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7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빌 3:8-10상)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9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10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빌 3:13)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신 4:25) 여러분이 자녀와 손자 손녀를 낳고 그 땅에서 오래 살게 될 때, 어떤 형체로든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를 부패시키거나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여 그분의 진노를 사면,

Ⅳ.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반드시 개인적이어야 한다. "나를 이끌어 주세요."(아 1:4)라는 말은 개인적인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개인적으로 이끌리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우리를 통해 주님께 이끌릴 것이다(렘 31:3, 비교 고후 11:2).

(아 1:4)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좇아 달려가렵니다— / 왕께서 나를 그분의 내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 우리는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높이 찬양하렵니다. /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답니다.

(렘 31:3) 여호와께서 멀리서 내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 "참으로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기에 / 내가 너를 자애로 이끌었다.

(고후 11:2)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A. 우리는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졌던 이들의 본을 따라야 한다.

1. 우리는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야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갈망을 위한 하나님의 친구였다 — 대하 20:7, 사 41:8, 약 2:23, 창 18:1–33.

(대하 20:7) 오, 저희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 주민들을 쫓아내시고 주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이 땅을 영원토록 주지 않으셨습니까?

(사 41:8)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 내가 선택한 야곱아 /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약 2:23)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으며,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린 것입니다.

(창 18:1–33)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날이 더운 한낮에 천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2그가 눈을 들어 보니, 자기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천막 입구에서 달려 나가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3말하였다. "나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면 이 종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4물을 조금 가지고 올 터이니,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5떡도 조금 가지고 올 터이니, 드시고 힘을 내십시오.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그렇게 하신 후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하여 주십시오." 6아브라함은 급히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드시오." 7또 아브라함은 소 떼에게로 달려가서 살이 연해 보이는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종에게 주었다. 종은 급히 송아지 요리를 준비하였다. 8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와 준비된 송아지 요리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고,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 그들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9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그대의 아내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저기 천막 안에 있습니다." 10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분명히 너에게 돌아오겠고,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그분 뒤에 있는 천막 입구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11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늙었고 나이가 많이 들었으며, 사라는 생리도 끊긴 지 오래였다. 12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이미 늙었고 나의 주도 다 늙었는데,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13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내가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고 하느냐? 14여호와에게 이룰 수 없는 일이라도 있다는 말이냐?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정한 때에 너에게 돌아오겠고,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15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며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16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내려다보았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걸어갔다. 17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18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은 그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닌가? 19내가 그를 안다. 그는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올 집안 식구들에게 명령하여 의와 정의를 실행함으로써 나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할 것이고,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다 이루어 줄 것이다." 20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21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일이 모두 나에게 들려온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아야겠다." 22그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23아브라함이 다가가서 말씀드렸다. "정말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24혹시 그 성에 의인 오십 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곳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 성에 있는 의인 오십 명을 위하여 그곳을 남겨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25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이 똑같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행하셔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6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소돔성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성 전체를 남겨 두겠다." 27아브라함이 말씀드렸다. "저는 다만 티끌이나 재에 불과하지만, 주님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28혹시 의인 오십 명에서 다섯 명이 모자란다면, 그 다섯 명 때문에 온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사십오 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29아브라함이 다시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혹시 그곳에서 사십 명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사십 명만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30아브라함이 말씀드렸다. "주님, 제가 말씀드려도 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삼십 명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삼십 명만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31아브라함이 말씀드렸다. "주

님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곳에서 이십 명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이십 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32아브라함이 말씀드렸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열 명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열 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33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떠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2. 우리는 모세의 본을 따라야 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가졌고 하나님의 권익을 위한 하나님의 동반자였다 — 출 33:11–14.

(출 33:11–14) 여호와는 마치 사람이 자기 동반자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시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 눈의 아들이자 모세를 시중드는 청년인 여호수아는 천막을 떠나지 않았다. 12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주님은 저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알려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또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13그러니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면 부디 저에게 주님의 길을 알려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제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14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3. 우리는 다윗과 아삽의 본을 따라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찾았다 — 시 27:4, 8, 80:3, 7, 14–19.

(시 27:4)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 그것을 구하리니 / 내 평생에 /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며 /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시 27:8)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에 / 제 마음으로 주님께 '오, 여호와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시 80:3) 오,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시 80:7) 오, 만군의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시 80:14–19) 오,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 간청하오니 돌아와 주십시오. /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 찾아와 주십시오, 이 포도나무를, 15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 주님 위하여 강하게 하신 아들을. 16이것은 불에 타 잘렸고 / 그들은 주님의 꾸짖는 얼굴 앞에서 멸망하오니 17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위에, / 주님께서 자신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18그리하시면 저희가 주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 저희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19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4. 우리는 주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셨으며, 매 순간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셨다 — 행 10:38하, 요 8:29, 16:32.

(행 10:38하)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 8:29)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내가 항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요 16:32) 보십시오, 여러분이 각자 자기 갈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올 것인데, 그 때가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5. 우리는 베드로의 본을 따라야 한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 자신의 타고난 힘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의 양을 목양했으며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랐다 — 요 21:15–19, 막 16:7.

(요 21:15–19)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16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17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18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대가 원하는 곳을 다녔으나, 그대가 늙어서는 그대의 팔을 벌릴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띠를 동여매어 그대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19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를 알리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

(막 16:7) 여러분은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여러분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십시오."

6. 우리는 바울의 본을 따라야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했다 — 고후 2:10, 5:9, 14–15, 20.

(고후 2:10)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고후 5:9)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입고 살든지 몸을 떠나서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고후 5:14–15)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15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후 5: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B. 주님을 사랑하는 추구하는 이는 주님을 가장 개인적인 방식으로 접촉하기를 갈망한다. 이러한 갈망은 '입맞춤'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입맞춤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아무도 동시에 두 사람과 입맞춤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아 1:2.

(아 1:2) "그이 입의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해 주었으면! /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까닭이랍니다.

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반드시 다정해야 한다. "그이 입의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해 주었으면!" '내게 입맞춤하는 것'은 다정한 것이다 — 아 1:2.

(아 1:2) "그이 입의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해 주었으면! /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까닭이랍니다.

A. 시편 2편 12절은 "아들께 입 맞추어라. / … 그분께로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다."라고 말한다.

(시 2:12) 아들께 입 맞추어라. / 그러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진노하시어 너희가 길에서 멸망하리니 / 그분의 진노가 느닷없이 불붙기 때문이다. / 그분께로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다.

1. 아들께로 피하는 것은 아들 곧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요 3:16, 36),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와 보호와 은신처로 삼는 것이다(시 18:1–2, 31:19–20, 34:8, 57:1, 71:1, 91:1–2, 4, 9, 118:8–9, 144:2, 잠 30:5).

(요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 3:36)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 18:1–2) 오, 저의 힘이신 여호와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2여호와는 나의 바위, 나의 요새, 나를 건져 내시는 분, /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나의 반석, /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산성.

(시 31:19–20)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 주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 그것은 주님께로 피하는 이들을 위하여 / 사람의 아들들 앞에 베푸신 것입니다. 20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임재 은밀한 곳에 숨기시어 / 사람들의 음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 그들을 피신처에 은밀히 감추시어 /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시 34:8) 여호와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고 깨달아라. / 그분께로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네.

(시 57:1) 저를 은혜로이 대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저를 은혜로이 대해 주십시오. / 제 혼 주님께로 피합니다. / 멸망이 지나갈 때까지 / 참으로 저는 주님의 날개 그늘로 피하렵니다.

(시 71:1) 오, 여호와님! 제가 주님께로 피하오니 /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시 91:1–2) 가장 높으신 분의 비밀한 곳에 거주하는 이는 /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거하리라. 2나는 여호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네. /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신뢰하는 나의 하나님!"

(시 91:4) 그분께서 그대를 깃으로 덮으시고 /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하시리니 / 그분의 진리는 큰 방패와 작은 방패.

(시 91:9) 그대가 내 피난처이신 여호와, / 가장 높으신 분을 그대의 처소로 삼았으니

(시 118:8–9)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이 /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이 / 통치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네.

(시 144:2) 내 자애의 주님이시며 내 요새시요 / 내 높은 산성이시며 나를 건져 주시는 분이시요 / 내 방패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요 / 내 백성을 내 아래 복종시키는 분이시라.

(잠 30:5)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정련되었고, / 그분은 그분 안으로 피하는 모든 이의 방패이시다.

2. 아들께 입맞춤하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 요 14:21, 23, 비교 시 91:14.

(요 14:21) 나의 계명들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요 14: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시 91:14) "그가 나를 사랑하기에, 나 그를 구출하며 / 그가 내 이름을 알기에, 나 그를 높은 곳에 세우리라.

3.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1:12),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인 주님을 누리는 것이다.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참여하기 위한 두 가지 요구 조건이다(고전 2:9, 비교 16:22).

(요 1:12)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고전 2:9) 오직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이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는 것들이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이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고전 16:22)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B. 우리가 주님과 다정한 관계를 가질 때, 그분은 우리의 누림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분이 되신다 — 엡 3:8, 2:7, 롬 10:12–13.

(엡 3: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

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엡 2:7)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롬 10:12–13)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니, 13"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은혜는 우리의 어머니이다 — 롬 8:15–16, 갈 4:24–26, 사 66:12–13.

   (롬 8:15–16)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16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갈 4:24–26) 이것은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시나이산에서 나왔는데, 노예 노릇 할 자녀들을 낳은 하갈입니다. 25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이산인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노예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26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가 있는 여자, 곧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사 66:12–13)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나 이제 그 성에 / 평화를 강처럼, / 민족들의 영광을 / 넘치는 시내처럼 흐르게 하리니 / 너희는 젖을 빨고 업혀 다니며 / 무릎에서 뛰놀리라. 13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 나 너희를 위로하리니 /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2.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다 — 마 9:15, 고후 11:2.

   (마 9:1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고후 11:2)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3.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형님이시다 — 요 20:17, 롬 8:29.

   (요 20:17)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십시오."

   (롬 8: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4.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다 — 마 11:19, 요 15:12–17.

   (마 11:19)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니, '보아라, 탐식가요 술꾼이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요 15:12–17) 나의 계명은 이것인데, 곧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3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4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을 행한다면, 여러분은 나의 친구들입니다. 15나는 더 이상 여러분을 노예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는 여러분을 친구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16여러분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나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계속 남아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7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명령하는 것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5.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조언자이시다 — 사 9:6.

   (사 9:6)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 한 아들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셨는데 / 통치가 / 그분의 어깨 위에 놓였고 / 그분의 이름은 / 놀라우신 조언자 / 전능하신 하나님 / 영원하신 아버지 / 화평의 왕이라 불리리라.

6.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시다 — 요일 2:1.

(요일 2:1) 나의 어린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하시는 변호자께서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시다 — 요 14:16, 15:26.

(요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 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요 15:26) 그러나 내가 아버지에게서 여러분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실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입니다.

8.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 — 시 23:1, 벧전 2:25.

(시 23: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한 것 없으리.

(벧전 2:25)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Ⅵ.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반드시 내밀해야 한다. "왕께서 나를 그분의 내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아 1:4하). 왕의 내실은 그리스도의 내실인 우리의 거듭난 영을 상징한다(딤후 4:22, 엡 3:16, 2:22).

(아 1:4하) 왕께서 나를 그분의 내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 우리는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높이 찬양하렵니다. /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답니다.

(딤후 4: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엡 3: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엡 2: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A. 우리는 비밀하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내밀하게 접촉하면서, 우리 전 존재를 그분께 열어서 그분의 빛 비춤과 주입을 받아들여야 한다 — 마 6:6.

(마 6:6)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B. 이 땅에서 최고의 직업은 하나님으로 빛나고 하나님을 비추어 낼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주입받는 것이다 — 출 33:11, 고후 3:16, 18, 4:1, 비교 마 14:23, 막 1:35, 눅 5:16, 6:12, 9:28.

(출 33:11) 여호와는 마치 사람이 자기 동반자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시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 눈의 아들이자 모세를 시중드는 청년인 여호수아는 천막을 떠나지 않았다.

(고후 3:16)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고후 3: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고후 4:1)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 14:23)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 밤이 되어도 거기 혼자 계셨다.

(막 1:35)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외딴곳에 나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니,

(눅 5:16) 그러나 예수님은 자주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눅 6:12)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눅 9:28) 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지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C. 우리는 우리의 숨을 곳이자 거처이자 충족의 비결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 — 시 31:20, 27:5, 90:1, 91:1, 빌 4:13.

(시 31:20)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임재 은밀한 곳에 숨기시어 / 사람들의 음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 그들을 피신처에 은밀히 감추시어 /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시 27:5) 환난 날에 / 그분은 나를 그분의 피신처에 감춰 주시고 / 그분의 천막 은밀한 곳에 숨겨 주시며 / 반석 위에 세워 주시리라.

(시 90:1) 오, 주님! 주님은 대대로 / 저희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시 91:1) 가장 높으신 분의 비밀한 곳에 거주하는 이는 /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거하리라.

(빌 4:13)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Ⅶ.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반드시 영적이어야 한다(아 1:4하).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의 영(왕의 내실) 안에 거하시며, 이 두 영은 한 영으로 함께 연합된다(요 4:24, 롬 8:16, 고전 6:17).

(아 1:4하) 왕께서 나를 그분의 내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 우리는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높이 찬양하렵니다. /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답니다.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롬 8: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고전 6: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A.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를 방문하신다. 우리의 영은 모든 주인의 주님이시자 모든 왕의 왕이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내실인 지성소이다 — 고전 15:45하, 롬 8:16, 딤후 4:22.

(고전 15:45하)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롬 8: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딤후 4: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B.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연합된 영을 사용해야 한다 — 고전 2:15과 각주 1, 엡 1:17, 2:22, 3:5, 16, 4:23, 5:18, 6:18.

(고전 2:15)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고전 2:15 각주 1) 영적인 사람은 자기의 혼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혼에 의해 살지 않고 자신의 영, 즉 하나님의 영으로 점유되어 활력을 얻은 거듭난 영이 자신의 온 존재를 다스리도록 허락하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그는 그러한 영을 따라 움직이며 행동하면서(롬 8:4) 영에 의해 산다. 이러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각을 위해 조성된 역량이 영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엡 1: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엡 2: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엡 3:5)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 주지 않으셨지만,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신언자들에게 이처럼 분명하게 영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엡 3: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엡 4:23)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엡 5:18)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합니다. 다만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엡 6: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Ⅷ. 주님과 우리의 개인적이고 다정하고 내밀하고 영적인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사랑하게 하며, '연회장'(아 1:7-8, 2:4)인 교회생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곳에서 우리는 변화시키시는 영에 의해 변화되고 교회생활 안에 있는 온전하게 하는 이들에 의해 온전하게 될 수 있다(엡 4:11-12). 이렇게 온전하게 하는 이들(혹은 '변화시키는 이들')은 변화시키시는 영과 동역하여 삼일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공급함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삼일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 우리의 미덕들이 되게 하여(아 1:10하-11)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함으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여(고전 3:12상, 계 21:18-21)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아 1:7-8)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말해 주세요. 당신은 어디서 양 떼를 먹이시나요? / 한낮에는 어디서 양 떼를 쉬게 하시나요? / 어찌하여 나는 당신 벗들의 양 떼 곁에서 / 얼굴이 가려진 이처럼 되어야 하나요?" 8"여인들 중 가장 어여쁜 이여, / 그대가 알지 못한다면 /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 목자들의 천막 곁에서 / 그대의 어린 염소들을 먹이도록 하오."

(아 2:4) 그이가 나를 연회장으로 이끄니 / 내 위에 나부끼는 그이 깃발은 사랑이었지요.

(엡 4:11-12)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12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 1:10하-11) 보석 꿰미들로 꾸며진 그대의 목이 사랑스럽기만 하오." 11"우리가 그대에게 은장식을 박은 / 금사슬을 만들어 주리다."

(고전 3:12상)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계 21:18-21)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9그 성의 성벽의 기초는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청옥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취옥이요, 20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귀감람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풍신자석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21또 열두 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문들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 2026 Living Stream Ministry

메시지 2

아가의 두 번째 단계 —
십자가와 하나 됨으로써 자아에서 벗어나도록 부름받음

성경: 아 2:8–3:5, 마 3:13–17, 21:32, 16:24

(아 2:8–3:5)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지금 그이가 오고 있어요, / 산들을 뛰어오르고 / 언덕들을 뛰어넘어. 9내 사랑하는 이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 같답니다. / 지금 그이가 우리 담 뒤에서 서성이며 / 창문들 틈으로 들여다보고 /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군요. 10내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응하여 말하네요. / '일어나 주오, 내 사랑 / 내 어여쁜 이여, 어서 와 주오. 11이제 겨울이 지나고 / 비도 그쳐 물러가니 말이오. 12땅에는 꽃이 피고, / 노래의 때가 되니 / 우리 땅에는 산비둘기 소리가 들린다오. 13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익어 가고 /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발하고 있소. / 일어나 주오, 내 사랑 / 내 어여쁜 이여, 어서 와 주오. 14바위틈에 있는, /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 그대의 표정을 보게 해 주고 /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오. / 그대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 표정은 사랑스럽다오. 15우리를 위해 여우들을 잡아 주오, / 꽃이 한창인 / 우리의 포도원들을 망치는 / 작은 여우들을.' " 16"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 나는 그이의 것 / 그이는 백합화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답니다. 17날이 새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까지 / 내 사랑하는 이여, 돌아와 / 베데르 산들의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되어 주세요." 3:1"나는 밤마다 내 침상에서 / 내 혼이 사랑하는 그이를 찾으려 하였건만 /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였네. 2나 이제는 일어나 성안을 다니며 / 거리와 광장에서 / 내 혼이 사랑하는 그이를 찾으리라. / 나는 그이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네. 3성안을 다니며 파수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네. / '내 혼이 사랑하는 그이를 보셨나요?' 4나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 내 혼이 사랑하는 그이를 찾고는 / 그이를 붙잡고 놓으려 하지 않았네. / 내 어머니의 집으로, / 나를 잉태하신 이의 방으로 그이를 이끌어 들이기까지." 5"예루살렘의 딸들이여, / 내가 그대들에게 가젤이나 들의 암사슴을 걸고 맹세하게 하니 / 내 사랑이 원할 때까지는 / 그녀를 흔들거나 깨우지 마오."

(마 3:13–17)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시자, 14요한이 말리며 "내가 주님께 침례 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오십니까?"라고 하니, 15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하시자, 요한이 허락하였다. 16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즉시 물에서 올라오셨다. 보아라, 하늘이 그분께 열렸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17보아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마 21:32) 왜냐하면 요한이 여러분에게 의의 길로 왔지만, 여러분은 그를 믿지 않았고, 세리들과 창녀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나중에도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마 16: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Ⅰ. 우리는 아가가 우리를 안내하여 솔로몬으로 예표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인식하게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A. 추구하는 연인의 추구의 첫 번째 단계는 그녀에게 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계시해 준다. 반면에 그녀의 추구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왕께서 중심이시며, 이제는 왕께서 그녀를 감상하시고 바라보시며 갈망하신다 — 아 2:14.

(아 2:14) 바위틈에 있는, /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 그대의 표정을 보게 해 주고 /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오. / 그대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 표정은 사랑스럽다오.

B.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계셨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있다. 시편 45편은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한다면, 우리의 혀가 준비된 작가의 붓이 되어, 그분의 온 존재에 대한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그분께 드릴 우리의 찬양을 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임을 계시한다 — 시 45:1, 마 12:34하, 고후 3:3, 6, 사 6:5–7.

(시 45:1) 제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해 드립니다. / 제 혀는 준비된 작가의 붓과 같습니다.

(마 12:34하)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고후 3:3)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 판에 쓴 것입니다.

(고후 3: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 6:5-7) 그때 내가 말하였다. / "내게 화가 있겠구나, 내가 이제 죽게 되었음이라! / 내가 입술 부정한 사람이요 / 입술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뵈었음이라!" 6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왔다. 7그가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 "이제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 너의 죄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정결하게 되었다."

Ⅱ. 아가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에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십자가와 하나 됨으로써 자아에서 벗어나도록 주님께 부름받는다. '십자가'와 '자아'와 '자기 성찰'이라는 이러한 세 핵심 용어는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Ⅲ.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지금 그이가 오고 있어요, / 산들을 뛰어오르고 / 언덕들을 뛰어넘어. / 내 사랑하는 이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 같답니다. / 지금 그이가 우리 담 뒤에서 서성이며 / 창문들 틈으로 들여다보고 /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군요."(아 2:8-9)

A. 주님을 추구하는 이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면 자기 성찰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그녀가 그리스도의 임재에서 벗어나 담을 쌓고 은둔하게 만들었다 — 아 2:9.

(아 2:9) 내 사랑하는 이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 같답니다. / 지금 그이가 우리 담 뒤에서 서성이며 / 창문들 틈으로 들여다보고 /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군요.

B. 자기 성찰은 자아를 들여다보고 분석함으로써 자아를 살펴보는 것이다. 자아는 자기 성찰로 조성되어 있다 — 비교 고전 4:3-4.

(고전 4:3-4)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날에 판단을 받든지, 나에게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4나는 나 자신이 틀렸다고 느끼지 않지만,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C.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의 자아는 바라볼 가치가 없다 — 히 12:1-2상, 요 3:14-15, 12:31-32, 민 21:4-9.

(히 12:1-2상)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구름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를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2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요 3:14-15)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 올려져야 합니다. 15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 12:31-32)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입니다. 32내가 땅에서 들려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어 올 것입니다."

(민 21:4-9) 그들은 에돔 땅을 피해 돌아가기 위하여 호르산을 떠나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는데, 길을 가는 동안 백성이 인내하지 못하게 되었다. 5그래서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거슬러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오? 여기에는 양식도 없고 물도 없소.

우리 혼은 이 형편없는 양식이 싫소." 6그러자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불 뱀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7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여호와와 어르신을 거슬러 말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에게서 뱀을 없애 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8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놓아라.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9모세가 놋 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았다.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놋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D. 그분께서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산들을 뛰어오르시고 언덕들을 뛰어넘으시는 것은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의미한다. 부활 능력이신 그분은 산들을 뛰어오르시고 언덕들을 뛰어넘으시는 그리스도이시다 — 아 2:8-9.

(아 2:8-9)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지금 그이가 오고 있어요, / 산들을 뛰어오르고 / 언덕들을 뛰어넘어. 9내 사랑하는 이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 같답니다. / 지금 그이가 우리 담 뒤에서 서성이며 / 창문들 틈으로 들여다보고 /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군요.

E. 주님을 추구하는 이는 자기 성찰에 빠져 낙심하지만, 주님은 그녀를 봄철로 부르고 계신다 — 아 2:10-11, 비교 히 3:7-8, 요 8:58.

(아 2:10-11) 내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응하여 말하네요. / '일어나 주오, 내 사랑 / 내 어여쁜 이여, 어서 와 주오. 11이제 겨울이 지나고 / 비도 그쳐 물러가니 말이오.

(히 3:7-8)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8그분을 노여우시게 하던 것처럼, 광야에서 그분을 시험하던 날처럼,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

(요 8:5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나는 -이다'입니다."라고 하시니,

F. 그녀가 자신을 들여다볼 때는 잠자는 겨울철이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그녀는 봄의 단계 곧 부활의 단계로 들어간다 — 아 2:10-13.

(아 2:10-13) 내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응하여 말하네요. / '일어나 주오, 내 사랑 / 내 어여쁜 이여, 어서 와 주오. 11이제 겨울이 지나고 / 비도 그쳐 물러가니 말이오. 12땅에는 꽃이 피고, / 노래의 때가 되니 / 우리 땅에는 산비둘기 소리가 들린다오. 13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익어 가고 /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발하고 있소. / 일어나 주오, 내 사랑 / 내 어여쁜 이여, 어서 와 주오.

G. 승리의 비결은 결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우리 자신을 보거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아를 고찰하지 않는 것이다 — 히 12:1-2상.

(히 12:1-2상)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구름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를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2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Ⅳ. "바위틈에 있는, /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 그대의 표정을 보게 해 주고 /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오. / 그대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 표정은 사랑스럽다오."(아 2:14)

A.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통해 그분의 부활 능력으로 십자가와 하나 됨으로써 자아에서 벗어난다 — 아 2:14.

(아 2:14) 바위틈에 있는, /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 그대의 표정을 보게 해 주고 /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오. / 그대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 표정은 사랑스럽다오.

1. 그리스도는 그분의 비둘기 곧 그분을 추구하는 이가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 안에, 즉 바위틈과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신 그분 안에 머물기를 원하신다 — 아 2:14, 갈 2:20, 고전 15:31, 고후 4:10-11.

(아 2:14) 바위틈에 있는, /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 그대의 표정을 보게 해 주고 /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오. / 그대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 표정은 사랑스럽다오.

(갈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고전 15:31) 형제님들,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고후 4:10–11)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1이것은 살아 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십자가에 머무는 것은 마치 바위투성이 길을 따라 바위틈과 높은 산에 있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든 일이다.
3.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활 능력, 곧 산을 뛰어오르시고 언덕을 뛰어넘으시는 '새벽 암사슴'이신 그리스도의 임재에 의한 것이다 — 시 22편 제목, 잠 4:18.

(시 22편 제목) 지휘자에게. '새벽 암사슴'에 맞추어. 다윗의 시

(잠 4:18)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여명의 빛 같아 / 점점 더 밝게 빛나 한낮에 이른다.

4. 그리스도는 그분의 연인을 강하게 하시고 격려하시어 일어나 자기 성찰이라는 낮은 상태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 그녀에게 부활 능력(아 2:8–9)을 보여 주심으로써 그녀를 강하게 하시며 그분의 부활의 넘치는 풍성으로 그녀를 격려하신다(10–13절).

(아 2:8–9)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지금 그이가 오고 있어요, / 산들을 뛰어오르고 / 언덕들을 뛰어넘어. 9내 사랑하는 이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 같답니다. / 지금 그이가 우리 담 뒤에서 서성이며 / 창문들 틈으로 들여다보고 /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군요.

(아 2:10–13) 내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응하여 말하네요. / '일어나 주오, 내 사랑 / 내 어여쁜 이여, 어서 와 주오. 11이제 겨울이 지나고 / 비도 그쳐 물러가니 말이오. 12땅에는 꽃이 피고, / 노래의 때가 되니 / 우리 땅에는 산비둘기 소리가 들린다오. 13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익어 가고 /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발하고 있소. / 일어나 주오, 내 사랑 / 내 어여쁜 이여, 어서 와 주오.

5. 그리스도의 연인들인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자아를 부인함으로써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한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그분의 십자가와 하나 됨으로써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게 된다 — 마 16:24, 빌 3:10, 롬 8:13.

(마 16: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빌 3: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롬 8:13)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6. 부활의 실재는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며(요 11:25), 이분은 완결되신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거듭난 영과 연합되셨다(롬 8:16, 고전 6:17).

(요 11:25)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롬 8: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고전 6: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B. 이러한 연합된 영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을 체험함으로써, 이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하나 되어 자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새 창조물 안에 있는 새사람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된다.

Ⅴ. 우리는 매일 죽고 매일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하며,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과 풍성이신 그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 고전 15:31, 36, 눅 9:23, 빌 3:10, 비교 호 6:1-3.

(고전 15:31) 형제님들,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고전 15:36)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며,

(눅 9:23) 또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빌 3: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호 6:1-3)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치료하실 것이요 /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2그분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 제삼 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게 되리라. 3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알기를 추구하자. / 그분의 나아오심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니 / 그분은 우리에게 비처럼, /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오시리라.

A. 우리는 시대의 이상과 사역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의의 길을 취해야 하며, 우리가 죽고 장사되기에만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열린 하늘과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아버지의 말씀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마 3:13-17, 21:32, 비교 겔 3:1-3.

(마 3:13-17)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시자, 14요한이 말리며 "내가 주님께 침례 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오십니까?"라고 하니, 15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하시자, 요한이 허락하였다. 16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즉시 물에서 올라오셨다. 보아라, 하늘이 그분께 열렸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17보아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마 21:32) 왜냐하면 요한이 여러분에게 의의 길로 왔지만, 여러분은 그를 믿지 않았고, 세리들과 창녀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나중에도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겔 3:1-3)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네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여라." 2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은 나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주셨다. 3그러시고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너의 배를 불리고 너의 속부분들을 채워라." 내가 그것을 먹으니, 내 입에 그 달콤함이 꿀과 같았다.

B. 우리는 교회생활을 위해 복합되신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죽음과 그 달콤한 효능,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부활과 그 내쫓는 능력을 누려야 한다 — 출 30:23-25, 롬 14:17-18, 비교 빌 1:19-21, 2:13, 3:10, 4:11-13.

(출 30:23-25) "너는 또 가장 좋은 향료를 가져오되 액체 몰약 오백 세겔, 향기로운 육계를 그 절반인 이백오십 세겔, 향기로운 창포 이백오십 세겔, 24계피 오백 세겔을 성소 세겔에 따라 가져오고 올리브기름 한 힌도 가져오너라. 25너는 그것들로 바르는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향 만드는 사람의 제조법에 따라 잘 복합된 향기로운 관유를 만들어라. 이것이 바르는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다.

(롬 14:17-18)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18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빌 1:19-21)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20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

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21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빌 2:13)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빌 3: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빌 4:11–13) 내가 궁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12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13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C. 우리는 십자가를 취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음식이다 — 마 26:39, 히 10:5–10, 요 4:34.

(마 26:39) 조금 더 나아가시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셔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히 10:5–10)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희생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6주님은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7그때 저는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두루마리 책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오, 하나님!' " 8위의 말씀에서 "희생 제물과 예물과 번제물과 속죄제물은 주님께서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라고 하셨습니다(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지는 것입니다). 9그 후에 그리스도는 "보십시오,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첫 번째 것을 폐지하시는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10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만에 영원히 드려짐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요 4:3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1. 하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진정한 하나를 갖기 위해 교회를 짊어지고 모든 성도들을 짊어지는 것이다 — 엡 4:1–3, 고전 1:10, 빌 2:2.

(엡 4:1–3)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2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며 3화평의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고전 1:10) 형제님들,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도록 하십시오.

(빌 2:2)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2. 신성한 영광 안에서의 하나는 우리가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고 자아가 아닌 몸을 중심 삼을 때 실현된다 — 요 17:21–23, 고전 12:24–25.

(요 17:21–23) 그들이 모두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여 주십시오. 22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3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전 12:24–25)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부

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25이것은 몸 안에서 분열이 없이 오히려 지체들이 서로를 동일하게 돌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3. 십자가는 우리의 외적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내적 존재 안에서는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다. 이 두 방면이 함께 협력하여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죽이고 부활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개조한다 — 고후 4:10–12, 12:7–10, 13:3–4.

(고후 4:10–12)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1이것은 살아 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고후 12:7–10) 또한 내가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서 내가 너무 높아질까 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전달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를 쳐서 내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8나는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도록 해 달라고, 이 일을 두고 주님께 세 번 간청하였습니다. 9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10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고후 13:3–4)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 대하여 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4사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4. 몸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며, 주님을 믿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분열을 일으키며 죽음을 퍼뜨리는 이들에게서 떠나는 것이다 — 골 3:12–15, 잠 25:15, 20, 26, 롬 15:7, 16:17, 민 6:6–7, 레 5:2.

(골 3:12–15)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자와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13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면, 서로 짊어지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같이, 여러분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14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연결하는 띠입니다. 15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잠 25:15) 관용으로 통치자가 설득되니 /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을 수 있다.

(잠 25:20) 마음 상한 이에게 노래를 불러 대는 이는 /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이와 같고 /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이와 같다.

(잠 25:26)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인은 / 탁해진 원천과 오염된 샘과 같다.

(롬 15: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롬 16:17) 형제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십시오.

(민 6:6–7) 자신을 여호와에게로 분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7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로 분별된 표시가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레 5:2) 또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기어 다니는 부정한 것들의 사체를 만졌다면, 그 일을 알지 못하였다 해도, 그는 부정하며 죄가 있게 된다.

D. 우리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교회생활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누려야 한다 — 고전 1:9, 2:2, 15:45하, 58.

(고전 1:9)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고전 2:2)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전 15:45하)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고전 15: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님들, 여러분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E.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먹음으로써 그분을 우리의 매일의 '항생제'로 취해야 한다 — 계 2:7, 벧전 2:24, 3:18, 요 6:57.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벧전 2:24)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직접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시어 상처 입으심으로써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벧전 3:18) 그리스도께서 또한 죄들 때문에 한 번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곧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육체 안에서는 죽으셨으나, 영 안에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요 6: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F.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한받으신 예수님을 밀의 땅으로 누리며, 부활하시고 무한하신 그리스도를 보리의 땅으로 누려야 한다 — 신 8:8, 요 12:24, 6:9.

(신 8:8) 그 땅은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가 있는 땅이며, 올리브나무와 그 기름과 꿀이 있는 땅입니다.

(요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 6:9)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G.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인 반석으로 누려야 하는데, 그 길은 부활 안의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를 마시고 흘려 보내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성소와 관련된 죄악에서 구원받는다 — 고전 10:4, 요 19:34, 출 17:6, 민 20:8, 18:1, 렘 2:13, 요 7:37-39, 겔 47:1, 계 22:1.

(고전 10:4)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요 19:34)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다.

(출 17:6) 이제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민 20:8) "너는 막대기를 들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말하여라. 너는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이 마시게 하여라."

(민 18:1)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를 비롯하여 너와 함께 있는 네 아들들과 네 집안은 성소와 관련된 죄악을 짊어져야 하며, 너를 비롯하여 너와 함께 있는 네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과 관련된 죄악을 짊어져야 한다.

(렘 2: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 나를 저버렸고 / 자기들을 위해 저

수조들을 팠는데 / 그것들은 물을 담아 둘 수 없는 / 새는 저수조들이었다.

(요 7:37-39)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시어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38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39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겔 47:1) 그분은 다시 집 입구로 나를 데리고 가셨는데, 물이 집의 문지방 아래에서 동쪽으로(집은 동쪽을 향해 있었다) 흘러나오고 있었다. 물은 집의 남쪽 아래, 제단 남쪽을 지나서 흘러내려 갔다.

(계 22: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H.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처로, 우리의 은신처로, 가장 높으신 분의 비밀한 곳으로 취해야 한다 — 아 2:14, 시 90:1, 91:1, 31:20, 83:3, 사 32:2, 출 33:22, 비교 마 6:6, 요 14:23.

(아 2:14) 바위틈에 있는, /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 그대의 표정을 보게 해 주고 /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오. / 그대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 표정은 사랑스럽다오.

(시 90:1) 오, 주님! 주님은 대대로 / 저희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시 91:1) 가장 높으신 분의 비밀한 곳에 거주하는 이는 /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거하리라.

(시 31:20)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임재 은밀한 곳에 숨기시어 / 사람들의 음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 그들을 피신처에 은밀히 감추시어 /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시 83:3) 주님의 백성을 해치려 흉계를 꾸미고 / 주님께서 숨겨 두신 이들을 해치려 음모를 꾸밉니다.

(사 32:2) 한 사람이 바람 피하는 곳과 / 폭풍우 가리는 곳 같고 / 메마른 곳에 흐르는 시냇물 같으며 / 황무지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출 33:22) 내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내가 너를 이 반석의 갈라진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내 손으로 덮어 주겠다.

(마 6:6)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요 14: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I. 우리는 얽혀 있고 복잡한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수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 — 아 2:2, 왕상 7:17-20, 마 6:28.

(아 2:2)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처럼 / 내 사랑이 딸들 가운데 그러하여라."

(왕상 7:17-20) 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에는 격자무늬 그물과 사슬 모양 고리가 있었는데, 한 기둥머리에 일곱 개가 있고 다른 기둥머리에도 일곱 개가 있었다. 18그는 이렇게 기둥을 만들었다. 그물 주위에 있는 석류 두 줄은 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를 덮었다. 그리고 다른 기둥머리에도 같은 식으로 하였다. 19주랑에 있는 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는 백합 모양으로, 직경이 사 규빗이었다. 20두 기둥의 기둥머리는 그물 옆의 불룩한 부분 위 가까운 곳에 놓였다. 그리고 석류 이백 개가 줄지어 두 기둥머리를 두르고 있었다.

(마 6:28) 또 여러분은 왜 옷에 대하여 염려하십니까? 들의 백합이 어떻게 자라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도 하지 않고 물레질도 하지 않습니다.

J.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써 사탄의 체현이자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선포한 혼인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 롬 1:9, 마 16:22-24.

(롬 1:9) 내가 기도할 때에 항상 여러분을 얼마나 끊임없이 언급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마 16:22-24)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한쪽으로 가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며 책망하기 시작하였다. 23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다. 왜냐하면 네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에 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24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K.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심으로써 신성한 생명을 표현하시고 신성한 속성들을 인간 미덕들로 살아 내신 주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 우리의 모형이신 그분을 내재적으로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낙인을 지니는 것이다 — 요 5:30, 벧전 2:21, 갈 6:17–18.

(요 5:30)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므로 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벧전 2:21)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주셨습니다.

(갈 6:17–18)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18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님들. 아멘.

L.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해야 하며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 빌 3:3, 살전 3:13, 고후 4:5, 고전 10:31, 비교 잠 25:28, 28:25–26, 29:23.

(빌 3:3)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살전 3:13)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견고하게 되어,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후 4:5)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고전 10:31) 그러므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잠 25:28) 자기의 영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성과 같다.

(잠 28:25–26) 탐욕을 부리는 이는 다툼을 일으키나 /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는 일이 잘되리라. 26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이는 어리석으나 / 지혜롭게 행하는 이는 구출되리라.

(잠 29:23)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나 / 겸허한 영을 지닌 이는 존귀를 얻게 된다.

M.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고, 우리의 쓴 환경들과 쓴 내적 존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치료자이시자 치료하는 능력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 출 15:22–27, 벧전 2:24, 계 2:7, 마 9:12.

(출 15:22–27)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광야를 삼 일 동안 걸었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23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마라라고 불린 것이다. 24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다는 말입니까?" 25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 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여호와는 그곳에서 백성을 위하여 율례와 규례를 세우셨으며 또 그곳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26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하여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계명을 청종하고 나의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27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열두 곳의 샘과 일흔 그루의 야자나무가 있었다. 그들은 그 샘물가에 진을 쳤다.

(벧전 2:24)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직접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시어 상처 입으심으로써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마 9:12)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강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N. 우리는 죽이고 부활하게 하시는 생명의 영의 법의 '스위치를 올려', 계속해서 주님을 접촉하고 만지면서 신성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분배 안에 머물러야 한다 — 롬 8:2, 10, 6, 11, 13.

(롬 8: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롬 8: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롬 8: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롬 8: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롬 8:13)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Ⅵ. 우리가 십자가와 하나 됨으로써 자아에서 벗어난 결과는 부활 생명의 번성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며,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변화됨으로써 아름답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의식하고, 몸 안에서 몸을 통해 몸을 위해 사는 것이다 — 빌 3:10, 골 2:19, 롬 12:4–5, 15, 고전 12:12–27.

(빌 3: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골 2: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롬 12:4–5)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5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롬 12:15)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고전 12:12–27)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13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14몸은 한 지체만이 아니라 많은 지체입니다. 15발이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16귀가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17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입니까?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입니까? 18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분께서 뜻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습니다. 19모두가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20그러나 이제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21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라고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22그럴 뿐만 아니라 몸 가운데서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23우리는 덜 귀하게 여기는 몸의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입혀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되지만, 24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25이것은 몸 안에서 분열이 없이 오히려 지체들이 서로를 동일하게 돌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26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27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 2026 Living Stream Ministry

메시지 3

아가의 세 번째 단계 —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서 승천 안에 살도록 부름받음

성경: 아 3:6–5:1

(아 3:6–5:1) "몰약과 유향, / 상인의 온갖 향료로 향기 날리며 / 연기 기둥처럼 / 광야에서 올라오는 저 여인이 누구인가? 7솔로몬의 침상이라. / 이스라엘의 용사들 중 / 육십 명의 용사가 에워싸고 있다네. 8저들은 모두 칼을 잘 다루며 전쟁에 노련한 이들 / 야간 경보에 대비하여 / 각자 넓적다리에 칼을 차고 있다네. 9솔로몬왕이 자신을 위해 / 레바논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다네. 10그 기둥들은 은으로, / 바닥은 금으로, 자리는 자주색으로 만들었는데 / 그 한가운데는 예루살렘 딸들의 / 사랑이 아로새겨져 있었다네." 11"시온의 딸들아! / 나와서 보아라, 약혼 날에 / 그의 마음이 기쁜 날에 / 어머니가 씌워 준 / 면류관을 쓴 솔로몬왕을." 4:1"오, 아름다워라, 내 사랑이여! / 오, 아름다워라! 너울 뒤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고 / 그대의 머리카락은 / 길르앗산에 누운 염소 떼 같다오. 2그대의 이는 / 씻는 곳에서 올라온 털 깎인 암양 떼, / 모두 쌍태를 낳고 / 새끼 잃은 것이 하나도 없는 암양 떼 같다오. 3그대의 입술은 진홍색 실 같고 / 그대의 입은 사랑스러우며 / 너울 뒤 그대의 뺨은 / 석류 한쪽 같다오. 4그대의 목은 /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 망대, / 천 개의 작은 방패와 / 용사들의 큰 방패가 모두 걸려 있는 망대 같다오. 5그대의 두 젖가슴은 / 백합화들 가운데서 풀을 뜯는 두 마리 어린 사슴, / 쌍둥이 가젤 같다오." 6"날이 새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까지 / 나는 몰약의 산과 / 유향의 언덕으로 가렵니다." 7"내 사랑이여, 그대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 그대에게는 아무런 흠도 없다오. 8나의 신부여,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갑시다. /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 스닐과 헤르몬의 꼭대기에서, / 사자들의 굴에서, / 표범들의 산에서 바라봅시다." 9"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렸소. / 그대 단 한 번의 눈길로 / 그대 단 한 줄의 목걸이로 그대는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렸소." 10"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 그대의 관유 향기는 / 온갖 향료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 11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신선한 꿀을 흘리고 /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 그대의 옷 향기는 / 레바논의 향기 같다오. 12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긴 동산, / 덮인 우물, 봉해진 샘. 13그대의 새싹들은 / 가장 좋은 열매가 달린 석류 과수원, 고벨화와 나드 14나드와 번홍화, / 창포와 육계 / 온갖 유향나무, / 몰약과 침향 / 온갖 최상의 향료가 여기 있다오. 15그대는 동산들의 샘, / 생수의 우물, /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라오." 16"북풍아, 깨어나라. / 남풍아, 오너라. / 나의 동산에 불어서 / 그 향기를 날려 / 내 사랑하는 이가 그의 동산에 와 / 그의의 가장 좋은 열매를 드시게 하여라." 5:1"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내가 나의 동산에 들어와 / 나의 몰약과 향료를 거두고 /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으며 / 나의 포도주와 나의 젖을 마셨다오." / "친구들이여, 먹게나. / 사랑하는 이들이여, 마시게나, 맘껏 마시게나."

Ⅰ. 그리스도의 연인의 체험의 세 번째 단계는 승천 안에 살도록 부름받아,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인 그리스도의 아름답게 된 연인이 되는 것이다 — 아 3:6–5:1.

Ⅱ. "나의 신부여,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갑시다. /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 스닐과 헤르몬의 꼭대기에서, / 사자들의 굴에서, / 표범들의 산에서 바라봅시다."(아 4:8)

A. 그리스도는 그분의 십자가에 머물도록 그분의 연인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분과 함께 승천 안에 살도록 그녀를 부르신다 — 아 2:14.

(아 2:14) 바위틈에 있는, /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 그대의 표정을 보게 해 주고 /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오. / 그대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 표정은 사랑스럽다오.

1. 그리스도는 그분의 승천(레바논)에서, 즉 진리(아마나)의 가장 높은 지점과 그리스도의 싸움에서의 승리('부드러운 갑옷'을 의미하는 스닐과 '멸망'을 의미하는 헤르몬)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그리고 하늘에 있는 원수들의 처소(사자들의 굴과 표범들의 산)에서 그분과 함께 바라보자고 그분의 신부인 연인에게 요청하신다.
2. 그리스도의 연인이 승천 안에 살고 있을 때, 그녀와 그리스도는 승천이라는 한 상태 안에서

살고 있는 한 쌍의 부부이다. 그들은 생명과 본성에서 동일하며 완전하게 서로 어울린다.

B. 승천 안에 사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의 영 안에 살 때, 우리는 하늘들에 계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 엡 2:22, 창 28:12–17, 요 1:51, 계 4:1–2, 히 4:12, 16.

(엡 2: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창 28:12–17) 야곱은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다. 13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곧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씨에게 주겠다. 14너의 씨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15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16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몰랐구나." 17그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구나."

(요 1:51)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 4:1–2)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들었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 주겠다." 2나는 즉시 영 안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히 4:12)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 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C. 우리는 가장 높으신 분의 비밀한 곳에 숨기를, 다시 말하면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 숨기를 배워서 그분을 우리의 거처로 삼아야 한다 — 시 91:1, 14–16, 비교 아 2:14.

(시 91:1) 가장 높으신 분의 비밀한 곳에 거주하는 이는 /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거하리라.

(시 91:14–16) "그가 나를 사랑하기에, 나 그를 구출하며 / 그가 내 이름을 알기에, 나 그를 높은 곳에 세우리라. 15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응답하리라. / 그가 곤경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와 함께하며 / 그를 건져 내어 존귀하게 하리라. 16그의 날을 연장하여 그를 만족하게 하고 /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 2:14) 바위틈에 있는, /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 그대의 표정을 보게 해 주고 /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오. / 그대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 표정은 사랑스럽다오.

1.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높고 가장 충만한 체험이다 — 시 90:1–2.

(시 90:1–2) 오, 주님! 주님은 대대로 / 저희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2산들이 생기기 전 / 주님께서 땅과 세상을 내시기 전 / 참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2.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 일생이 짧고 죄들과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 시 90:3–12.

(시 90:3–12) 주님은 사람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들아, 돌아가거라." 4주님 보시기에는 천 년이 / 지나간 어제 같고 / 하룻밤의 한때 같습니다. 5주님께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 가듯 하시니 그들은 잠든 이 같고 / 아침에 새로 올라오는 풀 같습니다. 6풀이 아침에 무성하게 새로 올라왔어도 / 저녁에는 베어져 말라 버리듯 7저희는 주님의 분노로 소멸되고 / 주님의 진노로 괴로움 당하였습니다. 8주님께서 저희의 죄악을 주님 앞에, / 저희의 은밀한 죄들을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으므로 9저희의 일생이 주님의 넘치는 진노 가운데 지나가고 / 저

희의 연수가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10저희의 연수가 칠십이요 / 강건하면 팔십이나 / 그 자랑거리는 수고와 슬픔뿐이며 / 덧없이 흘러가니 저희가 날아가 버립니다. 11누가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 누가 주님에 대한 경외심에 따라 주님의 넘치는 진노를 알겠습니까? 12그러니 저희의 날 수 세는 법을 가르치시어 / 저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3.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매 순간 그분 안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분 밖에는 죄들과 고통뿐이기 때문이다 — 시 90:8, 요 16:33.

(시 90:8) 주님께서 저희의 죄악을 주님 앞에, / 저희의 은밀한 죄들을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으므로

(요 16:33)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들을 한 것은 여러분이 내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4.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인 우리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한다. 우리의 영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주목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주입받아, 아름답게 된 새 창조물이 된다 — 엡 2:22, 롬 8:6, 시 27:4, 사 60:7하, 19하, 62:3, 아 3:11, 잠 12:4상.

(엡 2: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롬 8: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시 27:4)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 그것을 구하리니 / 내 평생에 /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며 /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사 60:7하) 그것들이 내 제단에 올려져 기쁘게 받아들여지며 / 나는 내 아름다운 집을 더 아름답게 하리라.

(사 60:19하)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고 / 너의 하나님이 너의 아름다움이 되리라.

(사 62:3) 또한 너는 여호와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고 / 네 하나님 손바닥에 놓인 왕의 두건이 되리라.

(아 3:11) "시온의 딸들아! / 나와서 보아라, 약혼 날에 / 그의 마음이 기쁜 날에 / 어머니가 씌워 준 / 면류관을 쓴 솔로몬왕을."

(잠 12:4상)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나

Ⅲ. "솔로몬왕이 자신을 위해 / 레바논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다네. / 그 기둥들은 은으로, / 바닥은 금으로, 자리는 자주색으로 만들었는데 / 그 한가운데는 예루살렘 딸들의 / 사랑이 아로새겨져 있었다네."(아 3:9–10)

A.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움직임을 위해 그리스도의 탈것, 그리스도의 '자동차'인 그리스도의 움직이는 그릇이 된다 — 비교 고후 2:12–17.

(고후 2:12–17) 더욱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 안에서 나에게 문이 열렸으나 13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내 영 안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14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개선 행진 가운데 이끄시며,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15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16이런 사람들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향기요, 저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에 충분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17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처럼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B.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으로 재건축되어,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한 인성이 우리의 외부 골격이 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내부 장식이 된다 — 아 3:9–10.

(아 3:9–10) 솔로몬왕이 자신을 위해 / 레바논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다네. 10그 기둥들은 은으로, / 바닥은 금으로, 자리는 자주색으로 만들었는데 / 그 한가운데는 예루살렘 딸들의 / 사랑이 아로새겨져 있었다네."

1. 솔로몬, 곧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그분 자신을 위한 가마로 만드신다. 우리의 책임은 다만 우리의 사랑을 그분께 드리고 우리 자신을 기꺼이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 요 21:15–17, 시 110:3.

(요 21:15–17)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16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17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시 110:3) 주님의 전쟁의 날에 / 주님의 백성이 헌신의 광채 안에서 / 기꺼이 자신을 바치리니 / 주님의 청년들은 주님께 / 새벽의 태에서 나온 이슬과 같을 것입니다.

2. 우리의 내적 존재에 '사랑이 아로새겨져야' 한다(아 3:10).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성으로 지니는 영역 안에 지켜질 것이고, 우리의 인성은 강권하는 그분의 애정 안에서 보호받을 것이다 — 고후 5:14.

(아 3:10) 그 기둥들은 은으로, / 바닥은 금으로, 자리는 자주색으로 만들었는데 / 그 한가운데는 예루살렘 딸들의 / 사랑이 아로새겨져 있었다네."

(고후 5: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C. 우리가 개인적이고 다정하며 내밀하고 영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타고난 존재가 허물어지고, 우리는 아들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은으로 만든 기둥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받침대)과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는 생명 주시는 영(자주색 자리)으로 개조된다. 이것은 우리가 그 영의 다스림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을 때 이루어진다 — 아 3:10, 비교 롬 8:28–29, 고후 4:16–18.

(아 3:10) 그 기둥들은 은으로, / 바닥은 금으로, 자리는 자주색으로 만들었는데 / 그 한가운데는 예루살렘 딸들의 / 사랑이 아로새겨져 있었다네."

(롬 8:28–29)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29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고후 4:16–18)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7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 냅니다. 18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Ⅳ.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서 승천 안에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그분만의 동산이 된다 — 아 4:10–15.

(아 4:10–15)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 그

대의 관유 향기는 / 온갖 향료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 11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신선한 꿀을 흘리고 /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 그대의 옷 향기는 / 레바논의 향기 같다오. 12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긴 동산, / 덮인 우물, 봉해진 샘. 13그대의 새싹들은 / 가장 좋은 열매가 달린 석류 과수원, 고벨화와 나드 14나드와 번홍화, / 창포와 육계 / 온갖 유향나무, / 몰약과 침향 / 온갖 최상의 향료가 여기 있다오. 15그대는 동산들의 샘, / 생수의 우물, /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라오."

A.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 그대의 관유 향기는 / 온갖 향료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 — 아 4:10.

1. 추구하는 이는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낫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추구하는 이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보배롭게 여기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다 알 수 없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서도 그분께서 으뜸이시라는 것을 보여 준다 — 비교 아 1:2, 롬 8:37, 고후 5:14.

(아 1:2) "그이 입의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해 주었으면! /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까닭이랍니다.

(롬 8: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고후 5: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2. 추구하는 이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영으로 적셔지고, 그 영께 복종함으로써 그 영에 의해 빚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 아 4:10하, 11하, 요 12:3, 고후 2:15.

(아 4:10하) 그대의 관유 향기는 / 온갖 향료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

(아 4:11하) 그대의 옷 향기는 / 레바논의 향기 같다오.

(요 12:3)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일 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바르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아 드리니, 그 집이 향유의 향기로 가득 찼다.

(고후 2:15)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B.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신선한 꿀을 흘리고 /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 아 4:11상.

1.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 이 둘의 연합인 젖과 꿀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두 방면, 곧 구속하는 방면과 산출하는 방면이다 — 신 8:8, 32:13-14, 요 1:29, 12:24, 마 26:26-28.

(신 8:8) 그 땅은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가 있는 땅이며, 올리브나무와 그 기름과 꿀이 있는 땅입니다.

(신 32:13-14) 여호와는 그가 땅의 높은 곳들을 올라타게 하시어 / 들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과 / 단단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먹게 하시며 14엉긴 소젖과 양젖에는 / 어린양의 기름 덩이를, / 바산에서 자란 숫양과 염소에는 / 가장 좋은 밀을 곁들여 먹게 하시고 / 발효된 포도주와 같은 포도즙도 마시게 하셨다네.

(요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요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 26:26-28)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어 축복하시고,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드십시오. 이것이 내 몸입니다."라고 하시고, 27또 잔을 가지시어 감사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다 이것을 마시십시오. 28이것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2. 특별히 우리가 영이 약하여 주님을 체험하고 적용하려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께서 젖과 꿀이시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과 달콤함을 느끼게 된다 — 고후 12:9–10.

(고후 12:9–10)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10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3. 꿀은 상처받은 이들을 회복하고, 젖은 새로 태어난 이들을 먹인다. 추구하는 이는 자기 안에 매우 많은 풍성을 저장하여 마치 혀 밑에 양식을 간직한 것 같으며, 어느 때에나 궁핍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분배할 수 있다 — 사 50:4, 엡 4:29, 시 45:1–2.

(사 50:4)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 가르침받은 이의 혀를 주시어 / 지친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는 법을 알게 하셨다. / 그분은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되 /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시어 / 가르침받은 이같이 듣게 하신다.

(엡 4:29)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 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시 45:1–2) 제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해 드립니다. / 제 혀는 준비된 작가의 붓과 같습니다. 2왕은 사람의 아들들보다 더 수려하시며 / 입술에 은혜가 부어졌기에 / 하나님은 왕께 영원히 복을 내리셨습니다.

4. 이러한 달콤함은 하룻밤 사이에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모으고 내적으로 활동하며 주의 깊게 저장한 데서 온다 — 비교 출 29:30, 시 92:13–14.

(출 29:30)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의 뒤를 잇는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섬길 때 칠 일 동안 그 옷을 입어야 한다.)

(시 92:13–14)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어져 /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며 14늙어서도 여전히 열매 맺고 / 진액이 가득하며 항상 푸르니

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긴 동산, / 덮인 우물, 봉해진 샘. / … 그대는 동산들의 샘, / 생수의 우물, /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라오."(아 4:12, 15)

A. 주님을 사랑하는 추구하는 이는 자신의 영적 진보의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만의 만족을 위한 동산이 되었다. 그녀는 열린 동산이 아니라 잠긴 동산, 봉해진 동산이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그녀가 사랑하는 분의 기쁨을 위한 것일 뿐 다른 어떤 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

1. 믿는 이들이 자신을 조금 더 잠그고 조금 더 단단히 봉한다면, 그들의 일은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은밀하게' 감추어진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서 더 깊은 일을 하시기 바란다 — 마 6:6, 13:20–21.

(마 6:6)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마 13:20–21) 또 흙이 얕게 덮인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21그의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사람입니다.

2. 교회생활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깊은 생활, 곧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 생활이다 — 사 37:31.

(사 37:31) 유다의 집 사람들 중에 피신하여 남은 이들은 다시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B.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창 2:8) 성경에 따르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생각하신 것이었다. '에덴'이라는 단어는 '기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즐겁고 만족하며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셨음을 가리킨다.

C. 교회생활은 하나님의 동산 곧 하나님의 농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풍성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게 한다 — 창 2:8, 골 1:10, 2:19, 고전 3:9, 계 22:1–2, 비교 출 25:31–32.

(창 2:8)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골 1:10) 또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앎으로써 자라기를 바랍니다.

(골 2: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고전 3:9)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계 22:1–2)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2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출 25:31–32)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야 한다. 등잔대의 밑받침과 대는 쳐서 만들되, 잔, 곧 꽃받침과 꽃잎이 등잔대와 하나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32등잔대 양쪽에서 가지 여섯 개가 나오게 하되, 한쪽에 등잔대 가지 세 개, 다른 쪽에 등잔대 가지 세 개가 나오게 해야 한다.

D. 하나님은 사람을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며 지키게 하셨다' — 창 2:15.

(창 2:15)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일구며 지키게 하셨다.

1. 사람이 땅을 일구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의 첫째 방면, 즉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이 자라도록, 특별히 생명나무가 자라도록 하는 것이다. 땅을 일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자라실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것이다 — 창 1:26상, 마 13:3–23.

(창 1:26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마 13:3–2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가서 4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5또 어떤 씨들은 흙이 얕게 덮인 바위 위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여 곧 싹이 나왔지만, 6해가 돋아 내리쬐니, 뿌리가 없어 말라 버렸으며, 7또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나무가 자라서 숨 막히게 하였습니다. 8그러나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또 어떤 것은 삼십 배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9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10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사람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라고 하니, 11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2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서 넘치게 될 것이지만, 없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입니다. 13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14또한 이사야의 신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15이 백성의 마음은 굳어지고 귀는 듣는 데 둔하여지고 눈은 감아 버렸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 돌이켜 내가 그들을 고쳐 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16그러나 여러분의 눈은 보게 되니 복이 있고, 여러분의 귀는 듣게 되니 복이 있습니다. 17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많은 신언자들과 의인들이 여러분이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으나 못 보았고, 여러분이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으나 못 들었습니다. 18그러므로 여러분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으십시오. 19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는,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씨가 뿌려진 사람입니다. 20또 흙이 얕게 덮인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21그의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사람입니다. 22또 가시덤불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말씀이 숨 막히게 되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23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인데, 반드시 열매를 맺어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육십 배, 또 어떤 사람은 삼십 배로 거둡니다."

2. 사람이 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의 둘째 방면, 즉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여 사탄을 처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원수에게서 동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땅을 지키는 것은 지식나무 곧 죽음의 나무인 사탄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 창 1:26하, 고후 5:4, 11:3, 고전 15:26, 비교 레 5:2.

(창 1:26하)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고후 5:4) 또한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탄식하는 것은 벗어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옷 입고 싶어서인데,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후 11:3) 전에 뱀이 간교하게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나는 다만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고전 15:26) 마지막으로 없어져야 할 원수는 죽음입니다.

(레 5:2) 또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기어 다니는 부정한 것들의 사체를 만졌다면, 그 일을 알지 못하였다 해도, 그는 부정하며 죄가 있게 된다.

E. 우리는 그리스도의 누림과 만족을 위해 그리스도를 누린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서 나온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다 — 아 1:12–14, 4:12–14, 5:1.

(아 1:12–14) "왕께서 상에 앉아 계실 때에 / 나의 나드가 그 향기를 내뿜었어요. 13내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몰약 주머니 / 밤새 내 젖가슴 사이에 있지요. 14내 사랑하는 이는 내게 / 엔게디 포도원들에 있는 고벨화 송이랍니다."

(아 4:12–14)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긴 동산, / 덮인 우물, 봉해진 샘. 13그대의 새싹들은 / 가장 좋은 열매가 달린 석류 과수원. 고벨화와 나드 14나드와 번홍화, / 창포와 육계 / 온갖 유향나무, / 몰약과 침향 / 온갖 최상의 향료가 여기 있다오.

(아 5:1)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내가 나의 동산에 들어와 / 나의 몰약과 향료를 거두고 /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으며 / 나의 포도주와 나의 젖을 마셨다오." / "친구들이여, 먹게나. / 사랑하는 이들이여, 마시게나, 맘껏 마시게나."

F. 이 동산에는 샘(곧 원천)과 생수의 우물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은 샘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우물이시며, 영 하나님은 흐르는 시내들이시다. 이로써 우리는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을 누림으로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 — 아 4:15, 요 4:14하.

(아 4:15) 그대는 동산들의 샘, / 생수의 우물, /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라오."

(요 4:14하)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G. "북풍아, 깨어나라. / 남풍아, 오너라. / 나의 동산에 불어서 / 그 향기를 날려" — 아 4:16상.

1. (차갑고, 혹독하고, 매섭고, 견디기 힘든) 북풍과 (따뜻하고, 부드럽고, 상쾌하고, 유쾌한) 남풍은 주님께서 믿는 이들이 그분을 충족함의 비결로 누리도록 훈련하는 데 사용하시는 두 가지 다른 환경이다 — 빌 4:11–13, 5–7, 1:20.

(빌 4:11–13) 내가 궁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12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13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 4:5-7)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6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7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빌 1: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주님을 추구하는 이는 모든 문제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는다. 추구하는 이는 삼일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 영으로 충만한 한, 어떤 환경에서든 기쁘게 그리스도를 살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 2026 Living Stream Ministry

메시지 4

아가의 네 번째 단계 — 부활 후에 십자가를 통해 휘장 안에서 살도록 더 강하게 부름받음

성경: 아 6:4상, 13

(아 6:4상) "내 사랑이여, 그대는 디르사만큼이나 아름답고 / 예루살렘만큼이나 사랑스러우며

(아 6:13) "돌아와요, 돌아와요, 술람미여 / 돌아와요, 돌아와요, 우리가 그대를 볼 수 있도록." / "너희는 어찌하여 두 진영의 춤을 보듯 / 술람미를 바라보려 하느냐?"

Ⅰ. 그리스도의 연인은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 사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 안에서 성숙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께 동산이 될 뿐 아니라(아 4:12–5:1, 6:2) 디르사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보호처 곧 그 성소의 보호처가 된다(아 6:4상).

(아 4:12–5:1)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긴 동산, / 덮인 우물, 봉해진 샘. 13그대의 새싹들은 / 가장 좋은 열매가 달린 석류 과수원, 고벨화와 나드 14나드와 번홍화, / 창포와 육계 / 온갖 유향나무, / 몰약과 침향 / 온갖 최상의 향료가 여기 있다오. 15그대는 동산들의 샘, / 생수의 우물, /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라오." 16"북풍아, 깨어나라. / 남풍아, 오너라. / 나의 동산에 불어서 / 그 향기를 날려 / 내 사랑하는 이가 그이 동산에 와 / 그이의 가장 좋은 열매를 드시게 하여라." 5:1"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내가 나의 동산에 들어와 / 나의 몰약과 향료를 거두고 /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으며 / 나의 포도주와 나의 젖을 마셨다오." / "친구들이여, 먹게나. / 사랑하는 이들이여, 마시게나, 맘껏 마시게나."

(아 6:2) "내 사랑하는 이는 그이 동산으로, / 향기 그윽한 꽃밭들로 내려갔어요. / 동산들 안에서 양 떼를 먹이고 / 백합화들을 모으려고요.

(아 6:4상) "내 사랑이여, 그대는 디르사만큼이나 아름답고 / 예루살렘만큼이나 사랑스러우며

A. 왕은 "내 사랑이여, 그대는 디르사만큼이나 아름답고 / 예루살렘만큼이나 사랑스러우며"라고 선포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추구하는 이의 아름다움을 칭송한다 — 아 6:4상.

B. 이스라엘의 왕도(王都)이며 왕궁이 있는 곳인 디르사(왕상 14:17, 15:21, 16:23)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소 곧 왕이신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언급된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이며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의 보호처이다.

(왕상 14:17)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디르사에 이르러 집 문지방에 들어서자, 아이가 죽었다.

(왕상 15:21) 바아사는 이 소식을 듣고 라마 건축하던 일을 멈추고 디르사에 머물렀다.

(왕상 16:23) 유다 왕 아사 제삼십일 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십이 년 동안 다스렸는데, 육 년 동안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C. 구약에서 하나님의 건축물은 디르사와 예루살렘으로 예표되었고, 신약에서 이 건축물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또한 그리스도의 아내(엡 5:25–32, 비교 창 2:22)인데, 궁극적으로 이 유기적인 몸의 건축은 지성소의 완결인 거룩한 성, 곧 영원 안에서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신 백성의 상호 거처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계 21:2–3, 16, 22).

(엡 5:25–32)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26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

* 'sanctuary', '거룩한 곳'이라는 뜻으로 성전 전체를 의미함—역자 주

게 하시려는 것이며, 27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8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9아무도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양하고 보살펴 줍니다. 그리스도도 교회를 이같이 대하십니다. 30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31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32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창 2:22)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계 21:2-3)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계 21:16) 그 성은 네모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았습니다. 그 천사가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타디온이었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았습니다.

(계 21:22) 나는 성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Ⅱ. 그리스도께 동산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요소 안에서 이 생명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번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성숙에 이르도록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과 연관되어) 건축되는 것이다 — 엡 3:8, 4:12-16.

(엡 3: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엡 4:12-16)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3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14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으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15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A. 하나님의 성소는 하늘들에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표징하는 휘장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뉜다 — 히 10:19-20.

(히 10:19-20)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예수님은 휘장,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살아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B.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휘장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찢어졌으나(마 27:51), 믿는 이들과 관련하여 그 휘장은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다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마 27:51) 보아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C.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탄의 전달자를 통하여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게 하심으로써 그가 너무 높아지지 않게 하셨다 — 고후 12:7.

(고후 12:7) 또한 내가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서 내가 너무 높아질까 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전달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를 쳐서 내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D.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먼저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며(요 3:6, 롬 8:10, 벧전 1:3), 그런 다음 그리스도와 그분의 풍성을 우리의 새로운 요소로 우리 존재 안으로 가져오시고 우리의 낡은 타고난 요소를 점차 배출하시는 내적인 신진대사의 과정에 의해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신다(고후 3:18, 롬 8:2).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변형되어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을 이룰 것이다(빌 3:21, 롬 8:23).

(요 3:6)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롬 8: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벧전 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 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니

(고후 3: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롬 8: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빌 3:21)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롬 8:23)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Ⅲ. 우리가 하나님의 새 창조물로서 그분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도 우리의 육체를 처리하는 보다 분명한 십자가의 체험을 통하여 휘장 안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궁극적인 부름이 여전히 필요하다.

A. 그리스도의 연인이 아가의 첫 번째 단계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여 만족을 얻은 후에, 주님은 자기 성찰에 갇혀 있는 그녀가 그분의 십자가를 체험함으로써 자아에서 나오도록 그녀를 첫 번째로 부르셨다. 그런 다음 주님은 부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 창조물로서 그분의 승천 안에 살도록 그녀를 다시 한번 부르셨다. 이제 주님은 그녀가 휘장 안에서 곧 하나님 자신인 지성소 안에서 살면서 그리스도로 체현되신 완결되신 하나님을 누리도록 그녀를 최종적으로 부르신다 — 비교 히 10:22.

(히 10:22)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한 양심에서 떠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어졌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1.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우리가 아무리 성숙하고 영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한, 즉 우리의 몸이 아직 변형되지 않은 한(롬 8:23, 빌 3:21), 우리는 여전히 휘장인 육체를 갖고 있다.

(롬 8:23)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빌 3:21)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2. 우리가 휘장 안에, 곧 지성소 안에 살려면 매일 십자가의 처리를 체험함으로써 휘장을 통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 고전 15:31, 눅 9:23.

(고전 15:31) 형제님들,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눅 9:23) 또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3.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성소가 된다. 참술람미로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복사판과 재생산이 된다 — 요일 5:20.

(요일 5:20)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어 그 참되신 분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4. 지성소에 있는 궤 속에는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한 놀라운 세 항목이 있다.

   a. 금항아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만나는 모든 공급의 신성한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킨다 — 출 16:32-34, 계 2:17상.

   (출 16:32-34) 모세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만나를 한 오멜 가득 채워 대대로 보관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게 한 이 양식을 자손들이 볼 수 있게 하여라.' " 33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 그 안에 만나 한 오멜을 가득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보관하십시오." 34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만나를 증거판 앞에 두어 보관하였다.

   (계 2:17상)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b. 싹 난 막대기는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신성한 삼일성의 셋 가운데 둘째 분은 부활이시다 — 민 17:1-11, 요 11:25.

   (민 17:1-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서 막대기를 거두되, 각 조상의 집안마다 하나씩 곧 그들 조상 집안에 따라 그 모든 인도자에게서 열두 개의 막대기를 거두어라. 너는 그 막대기 위에 각 사람의 이름을 써야 한다. 3레위의 막대기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각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마다 막대기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너는 회막 안,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판 앞에 그 막대기들을 놓아두어야 한다. 5내가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의 막대기에 싹이 날 것이니, 나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불평하는 것 곧 나에게 불평하는 것을 멈추게 하겠다." 6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인도자들이 자기들의 조상 집안에 따라 막대기를 각자 하나씩, 곧 열두 개의 막대기를 그에게 주었다. 아론의 막대기도 그 막대기들 가운데 있었다. 7모세는 그 막대기들을 증거막 안 곧 여호와 앞에 놓아두었다. 8다음 날 모세가 증거막 안에 들어가 보니, 레위 집안을 위한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 있었다. 심지어 그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익은 아몬드가 달려 있었다. 9모세가 모든 막대기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로 가지고 나오자, 그들이 보고 각자 자기 막대기를 가져갔다. 10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막대기는 증거판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고 보존하여 반역자들에게 표시가 되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나에게 불평하는 것을 끝내고 죽지 않게 하여라." 11모세는 그대로 하였다.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요 11:25)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c. 율법의 돌판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내적인 법인 생명의 영의 법을 가리킨다(롬 8:2, 10). 생명의 영의 법은 언약의 돌판으로 상징된다(출 25:16, 31:18, 신 10:1-5, 렘 31:33).

   (롬 8: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롬 8: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출 25:16)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안에 넣어 두어야 한다.

(출 31:18) 여호와께서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그에게 증거판 두 개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돌판들이었다.

(신 10:1–5)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돌판 두 개를 처음 것같이 깎아 가지고 산으로 올라와 나에게로 오너라. 또 나무로 궤를 하나 만들어라. 2네가 깨뜨려 버린 그 처음 돌판들에 쓴 말을 내가 그 돌판들에 다시 쓰겠다. 너는 그것들을 그 궤 안에 넣어 두어야 한다.' 3그래서 나는 시팀 나무로 궤를 만들고 돌판 두 개를 처음 것같이 깎아서, 그 돌판 두 개를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4그러자 여호와는 회중이 모인 날에 산 위 불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을 처음 쓰신 대로 그 돌판들에 쓰셔서 그것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5그때 나는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와, 내가 만든 궤 안에 그 돌판들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것들은 지금도 그 안에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렘 31:33) 그러나 그날들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나는 내 법을 그들의 속부분들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d.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엡 4:6), 아들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골 1:27, 고후 13:5), 그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롬 8:9)을 보아야 한다.

(엡 4:6)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골 1:27)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고후 13:5) 여러분은 자신이 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고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시험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롬 8:9)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e.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지성소 안에 거하고 계신다. 우리는 실지적인 지성소인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공급의 근원이신 아버지와 부활이신 아들과 생명의 법이신 그 영을 만나게 된다.

B.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은 지성소 안에, 곧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안에 살면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가장 충만한 정도로 누린다. 이것이 아가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연인의 체험 중 가장 높은 단계이다.

Ⅳ. 궁극적으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형상이 되어 놀라운 술람미가 된다. 술람미는 솔로몬의 복사판으로서 그리스도의 배필인 새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상징이다 — 아 6:13, 계 21:2, 9–10, 22:17상.

(아 6:13) "돌아와요, 돌아와요, 술람미여 / 돌아와요, 돌아와요, 우리가 그대를 볼 수 있도록." / "너희는 어찌하여 두 진영의 춤을 보듯 / 술람미를 바라보려 하느냐?"

(계 21: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계 21:9–10)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10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계 22:17상)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A. 솔로몬왕이 시골 사람이 되어 시골 소녀에게 구애함으로 그녀를 자신의 왕비, 자신의 복사판이 되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시어 사람에게 구애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배필로 삼으려고 하셨다 — 마 9:15, 계 19:7, 비교 시 45:1–3, 9, 13–14.

(마 9:1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계 19:7)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시 45:1–3) 제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해 드립니다. / 제 혀는 준비된 작가의 붓과 같습니다. 2왕은 사람의 아들들보다 더 수려하시며 / 입술에 은혜가 부어졌기에 / 하나님은 왕께 영원히 복을 내리셨습니다. 3강하신 분이시여! 칼을 넓적다리에 차시고 / 왕의 위엄과 광채로 옷 입으십시오.

(시 45:9) 왕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여인들 중에는 여러 왕의 딸들이 있으며 / 왕후는 오빌의 금을 두르고 왕의 오른편에 서 있습니다.

(시 45:13–14) 왕의 딸은 왕의 거처에서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우니 / 그 여인의 옷은 금실을 넣어 짠 것입니다. 14그 여인은 수놓아진 옷을 입고 왕께로 이끌릴 것이고 / 그 여인을 뒤따르는 처녀들 곧 그 여인의 동료들도 / 왕께로 인도될 것입니다.

B.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구애하셨고, 지금은 우리가 그분과 개인적이고 다정하고 내밀하고 영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그분의 표현을 위해 신성하게 됨으로써 그분께 구애하기를 원하신다 — 전 1:2, 아 1:1–8, 비교 고후 2:10, 출 33:11, 롬 8:4, 6, 고전 2:15.

(전 1:2) 전도자가 말한다. "허무 중의 허무, / 허무 중의 허무라. 모든 것이 허무여라."

(아 1:1–8) 솔로몬의 아가. 2"그이 입의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해 주었으면! /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까닭이랍니다. 3당신의 바르는 기름은 향기가 좋고 / 당신의 이름은 쏟은 관유 같아요. / 그러하기에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한답니다. 4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좇아 달려가렵니다— / 왕께서 나를 그분의 내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 우리는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높이 찬양하렵니다. /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답니다. 5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난 비록 검으나 사랑스럽답니다, / 게달의 천막처럼 솔로몬의 휘장처럼. 6내가 검다 하여 나를 흘겨보지 말아요. / 햇볕이 나를 그을려 놓은 탓이니까요. /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화내며 / 나를 포도원지기로 만들었답니다. / 하지만 내 포도원은 지키지 못하였어요. 7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말해 주세요. 당신은 어디서 양 떼를 먹이시나요? / 한낮에는 어디서 양 떼를 쉬게 하시나요? / 어찌하여 나는 당신 벗들의 양 떼 곁에서 / 얼굴이 가려진 이처럼 되어야 하나요?" 8"여인들 중 가장 어여쁜 이여, / 그대가 알지 못한다면 /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 목자들의 천막 곁에서 / 그대의 어린 염소들을 먹이도록 하오."

(고후 2:10)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출 33:11) 여호와는 마치 사람이 자기 동반자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시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 눈의 아들이자 모세를 시중드는 청년인 여호수아는 천막을 떠나지 않았다.

(롬 8: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롬 8: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고전 2:15)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C.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성형이다. 이것은 이제 이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D.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술람미는 춤추는 두 진영 혹은 두 군대(히브리어로 '마하나임'임)에 비유된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 곧 하나님의 두 군대를 본 후에 자신이 있던 장소를 마하나임이라 불렀고,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소유를 '두 군대'로 나누었다 — 아 6:13, 창 32:1–2.

(아 6:13) "돌아와요, 돌아와요, 술람미여 / 돌아와요, 돌아와요, 우리가 그대를 볼 수 있도록." / "너희는 어찌하여 두 진영의 춤을 보듯 / 술람미를 바라보려 하느냐?"

(창 32:1–2)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났다. 2야곱은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영이로구나." 그리하여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1.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났고, 야곱은 그 장소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 창 32:1–2.

   (창 32:1–2)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났다. 2야곱은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영이로구나." 그리하여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2. 야곱은 하나님의 두 군대인 천사들을 보았을 때,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소유를 두 무리 혹은 '두 군대'로 나누었다. 이것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들이며 강한 증거를 지니고 있음을 가리킨다 — 창 32:7.

   (창 32:7) 그러자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근심이 되어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 떼와 소 떼와 낙타들을 두 진영으로 나누었다.

3.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거인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연약한 이들, 더 약한 이들,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원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 고후 11:29, 롬 9:16.

   (고후 11:29)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나 자신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롬 9:16)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달음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4. 하나님은 스스로 강한 이들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기는 이들이 될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은 몸의 원칙 안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더 약한 이들일 것이다 — 고전 1:26–28, 고후 11:29, 12:9–10, 13:3–5, 계 3:8, 벧전 5:5, 신 32:30, 전 4:9–12, 롬 9:16, 16:20.

   (고전 1:26–28) 형제님들,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며, 출신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27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며, 28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의 출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시어

   (고후 11:29)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나 자신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고후 12:9–10)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10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고후 13:3–5)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 대하여 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4사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5여러분은 자신이 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고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시험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계 3:8) 나는 너의 일을 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의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벧전 5:5)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연장한 이들에게 복종하고, 모두가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 32:30)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고 / 여호와가 그들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 어떻게 한 사람이 천 명을 뒤쫓고 / 두 사람이 만 명을 도망치게 하겠느냐?

(전 4:9–12) 둘이 혼자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에 대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니 10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의 동료를 일으켜 준다. 그러나 넘어져도 자기를 일으켜 줄 다른 이가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11또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12어떤 사람이 하나를 당해 내면 둘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롬 9:16)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달음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롬 16:20)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이 여러분의 발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5. 두 군대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원칙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을 통해 넉넉히 이기는 이들임을 보여 주는 강한 증거라는 것이다 — 롬 8:37, 12:5, 신 32:30, 전 4:9–12.

(롬 8: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롬 12: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신 32:30)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고 / 여호와가 그들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 어떻게 한 사람이 천 명을 뒤쫓고 / 두 사람이 만 명을 도망치게 하겠느냐?

(전 4:9–12) 둘이 혼자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에 대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니 10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의 동료를 일으켜 준다. 그러나 넘어져도 자기를 일으켜 줄 다른 이가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11또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12어떤 사람이 하나를 당해 내면 둘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6. 하나님은 그분과 하나인 백성, 곧 땋은 머리로 상징된 것처럼(아 1:11) 그분께 복종하고, 보석 꿰미들로 꾸며진 목으로 상징된 것처럼(10절) 유연한 의지로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이 필요하시다.

(아 1:11) "우리가 그대에게 은장식을 박은 / 금사슬을 만들어 주리다."

(아 1:10) 장신구로 땋은 머리가 드리워진 그대의 두 뺨과 / 보석 꿰미들로 꾸며진 그대의 목이 사랑스럽기만 하오."

7.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어떻게 도달할지를 고려할 때,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를 긍휼과 존귀와 영광의 그릇들로 만드시는 사랑과 능력과 긍휼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 롬 9:16, 21–23, 아 8:5–6.

(롬 9:16)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달음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롬 9:21–23)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22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멸망받아야 마땅한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너그러이 대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23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아 8:5–6)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 "사과나무 아래에서 나 그대를 깨웠다오. / 거기에서 그대 어머니가 산고 겪었고 / 거기에서 그 여인이 산

고 겪으며 그대를 낳았다오.” 6“나를 도장처럼 당신 마음에, / 도장처럼 당신 팔에 지녀 주세요. /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 질투는 스올만큼이나 잔인하니까요. / 그 불꽃들은 이글거리는 불꽃들, / 여호와의 불길이랍니다.

© 2026 Living Stream Ministry

메시지 5

아가의 다섯 번째 단계 — 주님의 일에 동참함

성경: 아 7:1–5, 11–12

(아 7:1–5) "통치자의 딸아, / 신을 신은 네 걸음걸이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 네 둥근 넓적다리는 보석 같으니 / 숙련된 예술가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구나. 2네 배꼽은 / 섞은 포도주가 결코 부족하지 않은 둥근 잔, / 네 배는 / 백합화로 둘러싸인 밀 더미. 3네 두 젖가슴은 두 마리 어린 사슴, / 쌍둥이 가젤 같구나. 4네 목은 상아 망대 같고 / 네 눈은 바드랍빔 성문 가에 있는 / 헤스본 연못 같으며 / 네 코는 다마스쿠스를 바라보는 / 레바논 망대 같구나. 5네 위에 있는 네 머리는 갈멜산 같고 / 네 머리의 머리채는 자줏빛 같아 / 왕이 네 머리 단에 매이는구나."

(아 7:11–12) 오세요, 내 사랑하는 이여, 우리 함께 들로 나가 / 마을들에서 묵어요. 12우리 일찍 일어나 포도원들로 가서 / 포도나무 움이 돋았는지 / 꽃망울이 터졌는지 /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지 보아요. / 거기서 나의 사랑을 당신에게 바칠게요.

Ⅰ. 솔로몬은 많은 포도원의 주인이고(아 7:12), 이 포도원들을 가꾸는 데에는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술람미는 마땅히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특권과 영광인가(고전 3:9, 고후 6:1상)!

(아 7:12) 우리 일찍 일어나 포도원들로 가서 / 포도나무 움이 돋았는지 / 꽃망울이 터졌는지 /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지 보아요. / 거기서 나의 사랑을 당신에게 바칠게요.

(고전 3:9)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고후 6:1상)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또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합니다.

Ⅱ. 주님의 일에 동참하려면 우리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 미덕들로 표현되는 신성한 생명의 모든 속성들로 장비되는 데 달려 있다. 그 영은 연인의 미덕들을 살펴보시는데, 이 미덕들은 그녀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했다는 표시이며 그녀에게 주님과 함께 일할 자격을 준다 — 아 7:1–5, 비교 고후 1:12, 2:14–17, 11:10상, 살전 2:1–12.

(아 7:1–5) "통치자의 딸아, / 신을 신은 네 걸음걸이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 네 둥근 넓적다리는 보석 같으니 / 숙련된 예술가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구나. 2네 배꼽은 / 섞은 포도주가 결코 부족하지 않은 둥근 잔, / 네 배는 / 백합화로 둘러싸인 밀 더미. 3네 두 젖가슴은 두 마리 어린 사슴, / 쌍둥이 가젤 같구나. 4네 목은 상아 망대 같고 / 네 눈은 바드랍빔 성문 가에 있는 / 헤스본 연못 같으며 / 네 코는 다마스쿠스를 바라보는 / 레바논 망대 같구나. 5네 위에 있는 네 머리는 갈멜산 같고 / 네 머리의 머리채는 자줏빛 같아 / 왕이 네 머리 단에 매이는구나."

(고후 1:12)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고후 2:14–17)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개선 행진 가운데 이끄시며,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15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16이런 사람들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향기요, 저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에 충분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17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처럼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고후 11:10상) 그리스도의 진실성이 내 속에 있으니,

(살전 2:1–12) 형제님들, 우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2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심한 싸움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말하였습니다. 3우리의 권유는 속임수나 더러움이나 간교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4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복음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5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한 번도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탐욕의 탈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다. 6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들에게서든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7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온화한 사람이 되어,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같이 하였습니다. 8여러분을 이처럼 열렬히 사랑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9형제님들,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중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10믿는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게, 그리고 나무랄 데 없이 처신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증인이며, 하나님도 증인이십니다. 11우리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위로하고 증언했습니다. 12그것은 그분 자신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A. 하나님의 유일한 일은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일해 넣으시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분 자신을 그들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다 — 갈 4:19, 엡 3:17상, 4:16.

(갈 4:19) 나의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엡 3:17상)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엡 4: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1. 우리는 우리라는 사람의 어떠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바울은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말한다. 바울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이 그리스도로 조성된 사람이었다 — 고전 15:10상.
2. 그 결과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 고전 15:10하.
3.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씀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사도 안에서 운행했던 은혜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인격인 부활하신 그리스도였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사도 안에 거하시면서 그의 모든 것이 되셨다.

   (갈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4.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여 그들의 누림이 되게 함으로써 교회가 건축되게 하는 것이었다 — 엡 3:2.

   (엡 3:2)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B. 아가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추구하는 이는 '통치자의 딸'(7:1)로 불린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연인이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의의 선물을 통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 그분의 왕의 생명 안에서 성숙에 이르러야 함을 보여 준다(롬 5:17).

(아 7:1) "통치자의 딸아, / 신을 신은 네 걸음걸이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 네 둥근 넓적다리는 보석 같으니 / 숙련된 예술가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구나.

(롬 5: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C. 그 영은 복음 전파(신을 신은 걸음걸이)의 아름다움을 살펴보신다 — 아 7:1, 롬 10:15.

(아 7:1) "통치자의 딸아, / 신을 신은 네 걸음걸이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 네 둥근 넓적다리는 보석 같으니 / 숙련된 예술가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구나.

(롬 10:15) 또 보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좋은 일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1. 복음 전파는 땅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 준다.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는 것'은 교회가 착용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한 부분이다 — 엡 6:13, 15.

(엡 6:1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악한 날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을 다 처리한 후에도 서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엡 6:15)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고,

2.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셨다. 이 화평은 우리의 복음이 되었다(엡 2:13–17). 이 화평의 복음은 견고한 기초로 세워졌고, 이 견고한 기초는 우리 발에 신을 수 있게 예비된 것이다.

(엡 2:13–17) 그러나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14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적대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으며, 15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16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7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던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3. 이렇게 신을 신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 서 있을 수 있는 견고한 기초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견고한 기초를 위한 화평은 그리스도이다 — 엡 6:14.

(엡 6:14) 그런즉 서서, 진리를 여러분의 허리띠로 두르고, 의의 가슴받이를 착용하고,

D. 주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추구하는 이에 관하여 "네 목은 상아 망대 같고"라고 말씀하신다. 성경의 예표에서 상아는 부활 생명을 상징한다. 따라서 그녀의 의지를 상징하는 그녀의 목은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다 — 아 7:4.

(아 7:4) 네 목은 상아 망대 같고 / 네 눈은 바드랍빔 성문 가에 있는 / 헤스본 연못 같으며 / 네 코는 다마스쿠스를 바라보는 / 레바논 망대 같구나.

E. 이어서 주님은 그녀의 눈에 대해 말씀하신다. "네 눈은 바드랍빔 성문 가에 있는 / 헤스본 연못 같으며" — 아 7:4.

(아 7:4) 네 목은 상아 망대 같고 / 네 눈은 바드랍빔 성문 가에 있는 / 헤스본 연못 같으며 / 네 코는 다마스쿠스를 바라보는 / 레바논 망대 같구나.

1. 아가 1장 15절에서 그녀의 눈은 비둘기의 눈에 비유되었지만, 7장 4절에서 그녀의 눈은 연못에 비유된다. 비둘기의 눈은 영적이지만, 연못 같은 눈은 빛을 향해 활짝 열려 있으며 온

우주를 볼 수 있을 만큼 커지고 넓어졌다.

(아 1:15) "오, 아름다워라, 내 사랑이여! / 오, 아름다워라!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다오."

(아 7:4) 네 목은 상아 망대 같고 / 네 눈은 바드랍빔 성문 가에 있는 / 헤스본 연못 같으며 / 네 코는 다마스쿠스를 바라보는 / 레바논 망대 같구나.

2. 이 연못은 성문 가에 있다. 성문은 들어오고 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교통을 위한 소통을 상징한다. 이러한 소통을 갖는 것은 우리의 넓혀진 시야에 달려 있다. 이 연못은 반사하는 연못인데, 이것은 그녀의 시력에 빛이 가득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3. 우리의 이상은 반드시 매우 넓혀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의 일을 보고 돌볼 뿐 아니라, 온 땅과 온 우주에서의 주님의 권익을 돌볼 것이다.

F. 주님은 그녀의 '코가 레바논 망대 같다'고 하시며 그녀를 높이 평가하셨다 — 아 7:4.

(아 7:4) 네 목은 상아 망대 같고 / 네 눈은 바드랍빔 성문 가에 있는 / 헤스본 연못 같으며 / 네 코는 다마스쿠스를 바라보는 / 레바논 망대 같구나.

1. 레바논 망대 같은 코는 주님을 사랑하는 추구하는 이에게 높고 예리한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빌립보서 1장 9절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어리석게 사랑해서는 안 되며, 온전한 지식과 예민한 지각이 넘치는 사랑으로 분별력 있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해 준다.

(빌 1:9)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온전한 지식과 모든 분별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2. 냄새를 맡는 기능은 성숙한 이들에게서만 발견된다. 이 감각은 밖으로 한 말이나 보이는 것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이 기능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직감에서 오는 내적인 능력으로서 우리가 좋은 냄새와 나쁜 냄새를 분별할 수 있게 해 준다.
3. 이 영적인 직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식별은 이성이나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도 내적인 정확한 느낌에 의한 것이다. 이 느낌에 의해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다.
4. 동시에 이 후각을 통해 우리는 나쁜 냄새도 식별할 수 있다. 많은 가르침이 틀린 것으로 간주될 수 없고, 많은 사람에게서 잘못된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지만, 우리는 무언가가 빗나갔다는 것을 감지한다.
5. 우리는 주님의 종에게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는 즉시 무언가가 잘못되었고 참되지 않으며 주님과 조화되지 않음을 느낀다. 이것이 주님의 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다.
6. 레바논 망대 같은 코는 코의 높이와 예리함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의 코가 일그러져 있거나 납작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봉사에서 감지력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때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자격을 잃게 된다 — 아 7:4, 레 21:18(1901년판 미국 표준역 성경 참조).

(아 7:4) 네 목은 상아 망대 같고 / 네 눈은 바드랍빔 성문 가에 있는 / 헤스본 연못 같으며 / 네 코는 다마스쿠스를 바라보는 / 레바논 망대 같구나.

(레 21:18) 몸에 결함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가까이 나아와서는 안 된다. 그들은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코가 일그러진 사람이나 한쪽 팔다리가 긴 사람이나

7. 어떤 결함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자격을 잃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결핍되어 있다면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레 21:17-21.

(레 21:17-21)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의 씨 가운데서 몸에 결함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자기 하나님의 음식을 바치러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18몸에 결함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가까이 나아와서는 안 된다. 그들은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코가 일그러진 사람이나 한쪽 팔다리가 긴 사람이나 19발이 부러진 사람이나 손이 부러진 사람이나 20등이 굽은 사람이나 왜소증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눈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나 습진이 있는 사람이나 인설이 있는 사람이나 고환이 상한 사람이다. 21제사장인 아론의 씨 가운데서 몸에 결함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여호와의 화제물을 바치러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몸에 결함이 있으니, 그는 자기 하나님의 음식을 바치러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G. 그 영은 하나님을 위해 강한(갈멜산, 비교 왕상 18:19–39) 연인의 생각과 의도(머리)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자줏빛)을 위하고 왕이신 사랑하는 분을 사로잡는(매이는구나) 그녀의 헌신을 위한 복종과 순종(그녀 머리의 머리채, 비교 민 6:5상)의 아름다움을 살펴보신다(아 7:5).

(왕상 18:19–39) 이제 전갈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에 있는 나에게로 모아 주시고, 아울러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신언자 사백오십 명과 아세라의 신언자 사백 명도 모아 주십시오." 20그러자 아합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갈을 보내어 신언자들을 갈멜산에 모이게 했다. 21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우왕좌왕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십시오." 백성은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22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호와의 신언자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신언자들은 사백오십 명이나 됩니다. 23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황소 두 마리를 끌어다 주십시오. 그들이 황소 한 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뜬 다음 장작 위에 올려 두되 불을 붙이지는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황소 한 마리를 잡아 장작 위에 놓되 불을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24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곧 하나님이십니다." 온 백성이 말하였다. "그것이 좋을 듯합니다." 25엘리야가 바알의 신언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수가 많으니 그대들을 위하여 황소 한 마리를 선택하여 먼저 잡으시오. 그리고 그대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되 불은 붙이지 마시오." 26그리하여 바알의 신언자들은 자기들에게 끌어다 준 황소를 잡고서, 아침부터 한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였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런 음성도 없었고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그들은 만들어 놓은 제단 주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27한낮이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말하였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보시오. 그가 신이지 않소. 그가 묵상하고 있거나 자리를 비웠거나 여행을 떠났나 보구려. 어쩌면 그가 자고 있다가 깨어날지도 모르겠소." 28그러자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그들의 관례를 따라 온몸에서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찔렀다. 29한낮이 지나고 소제물을 바치는 때가 되기까지 그들은 진언하였으나, 아무런 음성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30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엘리야에게 가까이 갔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보수하였다. 31그러고 나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에 따라 돌 열두 개를 가져왔다. (야곱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32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주위에 씨앗 두 스아 정도가 들어갈 도랑을 팠다. 33엘리야는 장작을 쌓고 황소를 각 뜬 다음 장작 위에 놓고 말하였다. "물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장작 위에 부으십시오." 34엘리야가 또 말하였다.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두 번째로 그렇게 하였다. 엘리야가 또 말하였다.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세 번째로 그렇게 하였다. 35물이 제단 주위로 흘렀는데, 엘리야는 도랑에도 물을 채웠다. 36소제물을 바치는 때가 되자 신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나아와 말하였다. "오, 여호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하였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37오, 여호와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시어 이 백성이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38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장작과 돌들과 먼지를 삼켜 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을 핥아 버렸다. 39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였다. "여호와,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다!"

(민 6:5상) 자신을 분별하여 서원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서는 안 된다.

(아 7:5) 네 위에 있는 네 머리는 갈멜산 같고 / 네 머리의 머리채는 자줏빛 같아 / 왕이 네 머리 단에 매이는구나."

Ⅲ. "오세요, 내 사랑하는 이여, 우리 함께 들로 나가 / 마을들에서 묵어요. / 우리 일찍 일어나 포도원들로 가서 / 포도나무 움이 돋았는지 / 꽃망울이 터졌는지 /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지 보아요. / 거기서 나의 사랑을 당신에게 바칠게요."(아 7:11–12)

A. "마을들에서 묵어요." — '마을들'은 복수이다. 그녀는 한 곳에 제한되지 않고 이 마을에서 저 마

을로 다니시는 주님의 체류하는 본성을 완전히 취했다. 그녀는 주님을 따라 잃어버린 양들과 상처 입은 이들을 찾아다닌다.

B. 그리스도의 연인은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이곳저곳에 머물며(마을들에서 묵음) 온 세상('들')을 위한 일을 수행하기 원한다. 이것은 그녀가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종파적인 사람이 아님을 가리킨다. 그녀는 일을 공개해 다른 이들이 그곳에 와서 머물 수 있게 하고 또 그녀도 다른 곳에 가서 머물 수 있다. 이것이 한 몸 안에서 한 일을 지키는 것이다.

C. '일찍'은 그녀가 주님의 일에서 부지런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아침 일찍 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게으름은 주님의 생명의 특징이 아니다. 참으로 영적인 이들만이 부지런할 수 있다.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차이는 시간을 쓰는 데서 나타난다 — 엡 5:16, 골 4:5.

(엡 5:16) 시간을 아끼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골 4:5) 외부 사람들에 대하여는 지혜롭게 행하여, 시간을 아끼십시오.

D.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단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고전 3:9상, 고후 6:1상). 주님과 함께 일하려면, 우리는 생명이 성숙해야 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하며 우리의 일이 반드시 그분의 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고전 3:9상)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후 6:1상)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또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합니다.

E. 술람미는 솔로몬의 배필로서 일하며, 모든 포도원(아 8:11) 곧 온 땅에 있는 교회들과 믿는 이들을 돌본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 단지 한 도시만을 위하지 않고 몸을 위해야 함을 보여 준다.

(아 8:11) 솔로몬은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하나 있어 / 그 포도원을 포도원지기들에게 내주고는 / 각 사람이 그 열매의 대가로 은 천 세겔을 가져오게 하였답니다."

F. 우리는 반드시 온 세상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 바울은 각 지방에 교회들을 세우고서 그리스도의 몸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그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섞이는 생활 안으로 이끎으로써 그러한 일을 하였다 — 롬 16:1–27, 고전 12:24–25상.

(롬 16:1–27)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여집사인 우리의 자매 뵈뵈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2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의로 그녀를 영접하고,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도와주십시오. 이 자매는 많은 사람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도 후원자였습니다. 3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4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5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배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6여러분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7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유명한 이들이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8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9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10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도불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11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깃수의 집안 사람들 중 주님 안에 있는 이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12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자매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13주님 안에서 선택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입니다. 14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15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누이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16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17형제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십시오. 18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그들 자신의 배를 섬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19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

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20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이 여러분의 발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1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22이 편지를 받아쓰는 나 더디오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23나를 접대하고 온 교회를 접대하는 가이오가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24(어떤 고대 사본들에는 다음과 같은 절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25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나의 복음에 따라, 또한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 것에 따라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26이 비밀이 이제는 드러났고, 신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이방인에게 알려져, 그들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27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전 12:24-25상)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25이것은 몸 안에서 분열이 없이

G. 연인과 그녀가 사랑하는 분은 교회들(포도원들) 안에서 다른 믿는 이들이 움이 돋고, 꽃망울이 터지고, 꽃이 피도록 부지런히 일한다. 주님의 연인은 주님의 일 가운데서 "거기서 나의 사랑을 당신에게 바칠게요."라고 말한다 — 비교 아 7:12.

(아 7:12) 우리 일찍 일어나 포도원들로 가서 / 포도나무 움이 돋았는지 / 꽃망울이 터졌는지 /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지 보아요. / 거기서 나의 사랑을 당신에게 바칠게요.

H. 우리가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일하고자 한다면, 그분의 일을 하는 곳에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 막 12:30.

(막 12:30)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Ⅳ. 첫째가는 일은 첫째가는 사랑에서 나오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다(계 2:4-5).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첫째가는 사랑으로 충만하여(계 2:4)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릴 때(골 1:18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 나오고 그 사랑을 표현한다(요 21:15-17, 엡 4:16, 고후 5:14-15, 20).

(계 2:4-5)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5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일을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골 1:18하)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 21:15-17)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먹이십시오." 16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17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엡 4: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고후 5:14-15)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15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

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후 5: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A. 어떤 믿는 이가 일을 시작할 때, 그는 자신이 이전에 했던 외적인 일의 공허함에서 구출받아야 한다. 그는 단지 사람이 자신에게 맡긴 일을 했을 뿐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 주신 일은 하지 않았다 — 아 1:6하–8.

(아 1:6하–8)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화내며 / 나를 포도원지기로 만들었답니다. / 하지만 내 포도원은 지키지 못하였어요. 7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말해 주세요. 당신은 어디서 양 떼를 먹이시나요? / 한낮에는 어디서 양 떼를 쉬게 하시나요? / 어찌하여 나는 당신 벗들의 양 떼 곁에서 / 얼굴이 가려진 이처럼 되어야 하나요?" 8"여인들 중 가장 어여쁜 이여, / 그대가 알지 못한다면 /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 목자들의 천막 곁에서 / 그대의 어린 염소들을 먹이도록 하오."

B. 믿는 이가 자아에서 구출될 때, 그의 마음은 개인주의적인 일에서 구출되어 주님의 일로 이끌리며, 모든 성도들의 상태와 심지어 가장 미성숙한 믿는 이들의 상태도 그의 관심을 끌며 그가 주목하는 대상이 된다.

C.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추구하는 이는 주님의 일을 주님 자신과 연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일을 통해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D. 그녀의 모든 수고는 '사랑의 수고'(살전 1:3)이다. 이러한 수고는 그녀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요일 4:19, 롬 5:5).

(살전 1:3) 또한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일 4:19)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롬 5:5)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V. "내 사랑하는 형제님들, 여러분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고전 15:58)

A. 오직 주님에 대한 첫째가는 사랑에 의해 유발된 이러한 일들만이 금과 은과 보석이다 — 고전 3:12.

(고전 3:12)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B. 주님의 일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타고난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 생명과 부활 능력에 의한 것이다.

C. 이렇게 수고할 때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며,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인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게 될 것이다 — 고전 3:12.

(고전 3:12)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 2026 Living Stream Ministry

메시지 6

아가의 여섯 번째 단계 — 휴거되기를 소망함

성경: 아 8:1–7, 13–14

(아 8:1–7) "오,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 오라버니 같다면! /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나 당신에게 입맞춤하여도 / 누구도 나를 멸시하지 않으련만. 2나를 가르치신 / 내 어머니의 집으로 / 당신을 모셔 들여 / 내 석류즙으로 만든 / 향긋한 술을 드시게 하련만. 3그이 왼손은 내 머리 밑에 있고 / 그이 오른손은 나를 감싸 안으련만." 4"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맹세하게 하니 / 내 사랑이 원할 때까지는 / 그녀를 흔들거나 깨우지 마오." 5"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 "사과나무 아래에서 나 그대를 깨웠다오. / 거기에서 그대 어머니가 산고 겪었고 / 거기에서 그 여인이 산고 겪으며 그대를 낳았다오." 6"나를 도장처럼 당신 마음에, / 도장처럼 당신 팔에 지녀 주세요. /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 질투는 스올만큼이나 잔인하니까요. / 그 불꽃들은 이글거리는 불꽃들, / 여호와의 불길이랍니다. 7많은 물도 사랑을 끌 수 없고 / 홍수도 그것을 잠기게 할 수 없는 법. / 사람이 사랑을 사려고 제 집 전 재산을 내놓는다면 / 완전히 멸시를 받기 마련이지요."

(아 8:13–14) "동산들에 거하시는 이여, / 나의 벗들이 당신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 /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 주세요. 14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셔서 / 향기 그윽한 산들 위에 있는 /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되어 주세요."

Ⅰ. 그리스도의 연인은 생명 안에서 자라고 변화됨으로써, 육체가 있다는 것 외에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정도로 성숙된다. 그녀는 육체 때문에 탄식하는 데서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녀가 몸의 구속을 통하여 휴거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 아 8:1–4, 롬 8:23, 고후 5:1–8, 엡 4:30하, 빌 3:21.

(아 8:1–4) "오,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 오라버니 같다면! /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나 당신에게 입맞춤하여도 / 누구도 나를 멸시하지 않으련만. 2나를 가르치신 / 내 어머니의 집으로 / 당신을 모셔 들여 / 내 석류즙으로 만든 / 향긋한 술을 드시게 하련만. 3그이 왼손은 내 머리 밑에 있고 / 그이 오른손은 나를 감싸 안으련만." 4"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맹세하게 하니 / 내 사랑이 원할 때까지는 / 그녀를 흔들거나 깨우지 마오."

(롬 8:23)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고후 5:1–8)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축물 곧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2우리는 이 장막 안에서 탄식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거처로 옷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우리가 옷 입는다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4또한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탄식하는 것은 벗어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옷 입고 싶어서인데,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5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며, 우리에게 그 영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6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떨어져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7(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8우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엡 4:30하)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습니다.

(빌 3:21)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Ⅱ.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아 8:5상)

A. 이전에 혼자 힘으로 영적인 광야(세상적인 환경)에서 올라왔던(아 3:6) 그리스도의 연인은 이제 사랑하는 분께 기대어, 의지할 데 없어 그분만 신뢰하며 육체에 속한 광야(땅에 속한 영역)에서 올라온다.

(아 3:6) "몰약과 유향, / 상인의 온갖 향료로 향기 날리며 / 연기 기둥처럼 / 광야에서 올라오는 저 여인이 누구인가?

1.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라는 말은 그녀가 자신이 무력하여 주님을 떠나서는 걸을 수도 없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녀는 사랑하는 분께서 지고 가셔야 하는 짐이 되었다 — 고후 12:9–10, 13:3–4.

(고후 12:9–10)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10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고후 13:3–4)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 대하여 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4사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2.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라는 말은 야곱과 같이 그녀도 엉덩이뼈가 주님에 의해 만져져서 타고난 힘이 처리받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 창 32:24–25.

(창 32:24–25) 야곱은 혼자 거기 남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샐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25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하는 중에 엉덩이뼈가 어긋나게 되었다.

3.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라는 말은 그녀가 극심한 압박에 처해 있는 듯하고 광야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그 압박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 고후 1:8–9.

(고후 1:8–9) 형제님들, 여러분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9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4. 주님을 신뢰하는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성령께서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 올라오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감탄하며 외치실 때까지, 의지할 데 없어 그분만 신뢰해야 한다.

a. "백성들아!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 그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아라. /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 시 62:8.

b. "주님을 신뢰하오니 / 아침에 주님의 자애를 듣게 해 주십시오. / 주님 향하여 제 혼을 높이 드오니 /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십시오." — 시 143:8.

c.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들은 /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시온산 같아라." — 시 125:1, 시온산에 관하여 시 48:2 각주 1 참조.

(시 48:2 각주 1) 시온은 다윗왕의 성이자(삼하 5:7) 예루살렘성의 중심으로, 그곳에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 건축되었다(시 9:11, 74:2, 76:2하, 135:21, 사 8:18).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시온은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인 교회 안의 이기는 이들의 무리 곧 온전하게 되고 성숙된 하나님–사람들을 나타내는 예표이다(히 12:22, 계 14:1–5).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아름다운 곳(시 48:2, 50:2)인 시온은 이기는 이들을 나타내는 예표이며, 그들은 교회의 고봉, 중심, 높아짐, 강화됨, 풍성함, 아름다움, 실재이다(시 48:2, 11–12, 20:2, 53:6상, 87:2). 시온인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고,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몸의 건축을 완결하여, 완결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영원 안에서의 하나님의 거처인 지성소를 이끌어 온다(계 21:1–3, 16, 22).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 전체가 시온이 될 것이며, 모든 믿는 이들이 이기는 이들이 될 것이다(계 21:7과 각주 71).

B. 그녀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만나러 그분과 함께 나가고 있다(비교 마 25:1). 우리는 사랑하는 분께 기댐으로써, 세상을 뒤에 두고 '나가는' 힘이 되시는 그분을 계속 누린다(창 5:22–24, 히 11:5–6).

(마 25:1)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습니다.

(창 5:22-24) 에녹은 므두셀라를 낳은 다음,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딸을 더 낳았다. 23에녹은 모두 삼백육십오 년을 살았다. 24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므로 그가 있지 않았다.

(히 11:5-6)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 가셨으므로, 그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다는 증거를 지녔습니다. 6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이시다'라는 것과 그분은 그분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Ⅲ. "나를 도장처럼 당신 마음에, / 도장처럼 당신 팔에 지녀 주세요. /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 질투는 스올만큼이나 잔인하니까요. / 그 불꽃들은 이글거리는 불꽃들, / 여호와의 불길이랍니다."(아 8:6)

A. 그녀는 사랑하는 분께 그분의 사랑(마음)과 그분의 힘(팔)으로 자신을 지켜 달라고 부탁한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요동치 않는 죽음만큼이나 강하기 때문이며, 그분의 질투는 정복할 수 없는 스올만큼이나 잔인하기 때문이다. 스올은 질투하시는 여호와와 같다. 그분은 부정적인 모든 것을 불사르는, 태워 버리는 불이시다(신 4:24).

(신 4:24) 왜냐하면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은 태워 버리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B. "그녀는 자신의 처음 상태를 회상할 때 겸손으로 가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자신이 비어 있고, 자신의 체험이 헛되며, 자신의 생각이 믿을 만하지 못하고, 자신이 추구한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뿐이다. 그녀는 자신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코 자신의 인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존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온전함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보존하시는 능력에 달려 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나를 도장처럼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당신 팔에 지녀 주세요.'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음'은 사랑하는 곳이고, '팔'은 힘이 있는 곳이다. '저를 도장처럼 영원히 당신의 마음에 지녀 주시고, 도장처럼 지워지지 않도록 당신의 팔에 지녀 주십시오. 제사장들이 그들의 가슴과 어깨에 이스라엘 자손을 짊어졌듯이, 당신의 마음 안에서 저를 항상 기억해 주시고 당신의 팔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약하고 비어 있다는 것을 알며 제 자신의 무력함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자신을 보존하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당신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고 자신에게 해만 줄 뿐입니다. 저의 모든 소망은 당신의 사랑과 능력에 있습니다. 전에 저는 당신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랑이 믿을 만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저는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바라볼 뿐입니다. 저는 이전에 당신을 붙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강한 것 같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있는 힘을 다해 붙잡는 것조차도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신뢰하는 것은 저의 붙드는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붙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당신께 더 이상 저의 사랑에 대해 말할 수 없고, 더 이상 제가 당신을 붙잡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은 당신의 힘과 당신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23권, 노래 중의 노래, 6단락, 164-165쪽)

C. 그분의 사랑은 시련으로도 끌 수 없고, 박해로도 잠기게 할 수 없으며, 어떤 재산과도 바꿀 수 없다 — 아 8:7, 롬 8:35-39, 고전 13:1-3.

(아 8:7) 많은 물도 사랑을 끌 수 없고 / 홍수도 그것을 잠기게 할 수 없는 법. / 사람이 사랑을 사려고 제 집 전 재산을 내놓는다면 / 완전히 멸시를 받기 마련이지요."

(롬 8:35–39)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겠습니까? 곤경이겠습니까? 박해이겠습니까? 굶주림이겠습니까? 헐벗음이겠습니까? 위험이겠습니까? 칼이겠습니까? 36성경에 "주님을 위하여 저희는 온종일 죽음에 넘겨지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습니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37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38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들이나 39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고전 13:1–3)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여러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큰 소리 나는 제금이 됩니다. 2내가 신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3내가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나누어 줄지라도, 또 내가 자랑거리가 되도록 나의 몸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Ⅳ. 아가의 마지막 두 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재촉하고 그분을 모셔 오기 위해 그분의 신부로 준비되는 데 매우 중요하다 — "동산들에 거하시는 이여, / 나의 벗들이 당신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 /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 주세요. / 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셔서 / 향기 그윽한 산들 위에 있는 /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되어 주세요."(아 8:13–14)

A. 그녀는 그분을 변화된 믿는 이들을 가리키는 동산들에 거하시는 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그녀의 벗들이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주님께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 주세요."라고 간청한다.

B.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오늘 당신의 목소리를, 사랑하는 분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추구하는 이에게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오."(비교 아 2:14)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고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는데, 이것은 친밀한 상호 교통을 위한 것이다.

(아 2:14) 바위틈에 있는, /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 그대의 표정을 보게 해 주고 /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오. / 그대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 표정은 사랑스럽다오.

C. 우리의 생활은 주님의 말씀에 달려 있고, 우리의 일은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다. 그리스도의 연인인 우리는 사랑하는 분이신 그분을 위해 일할 때 항상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과의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D. 우리의 기도의 중심적인 요점은 주님의 말씀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 계 2:7, 사 50:4–5, 출 21:6.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사 50:4–5)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 가르침받은 이의 혀를 주시어 / 지친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는 법을 알게 하셨다. / 그분은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되 /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시어 / 가르침받은 이같이 듣게 하신다. 5주 여호와는 나의 귀를 열어 주셨으며 / 나는 거역하지 않았고 / 돌아서지도 않았다.

(출 21:6) 그의 주인은 그를 하나님에게 데리고 와야 하며,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영원토록 그 주인을 섬겨야 한다.

E.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계시나 빛이나 지식도 없을 것이다. 믿는 이들의 생활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하심에 달려 있다.

F. 따라서 우리가 사무엘과 마리아처럼 듣는 이의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이 종이 듣고 있습니다."(삼상 3:10)라고 말했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눅 10:39).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이렇게 부르신다 — "귀가 있는 사람

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계 2:7상)

(삼상 3:10) 여호와께서 오셔서 곁에 서시어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셨다.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이 종이 듣고 있습니다."

(눅 10:39)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G. 주님께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 관해 말하는 아가 8장 13절과 14절은 내재적으로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와 연관된다. 에베소서의 이 절들은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요약해 준다.

(아 8:13-14) "동산들에 거하시는 이여, / 나의 벗들이 당신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 /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 주세요. 14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셔서 / 향기 그윽한 산들 위에 있는 /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되어 주세요."

(엡 5:25-27)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26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27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 에베소서 5장 25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곧 우리를 사시기 위해 죽으셨는데, 이는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 절은 그리스도께서 법리적인 구속을 이루신 우리의 구속자 이심을 계시한다.

   (엡 5:25)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2. 이어서 에베소서 5장 26절은 그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절은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준비하시기 위해 유기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심을 계시한다.

   (엡 5: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a. 현재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시며(고전 15:45하),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은 그분의 말씀 안에 체현되어 계신다(요 6:63, 엡 6:17-18, 딤후 3:16).

      (고전 15:45하)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요 6: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엡 6:17-18)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18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가르치고 가책받게 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b.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즉각적이고 현재적이며 살아 있는 개인적인 말씀으로서 신진대사적으로 낡은 것을 씻어 내고 새로운 것으로 대치하여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엡 5: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c. 우리는 사랑하는 분의 목소리, 곧 그분께서 우리에게 매일 하시는 즉각적인 현재의 말

씀을 개인적으로 들어야 한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흐르는 생명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내적이고도 신진대사적으로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킨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이러한 씻는 과정 안에 있다.

3. 에베소서 5장 27절은 그분께서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절은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자기 앞에 세우시는 신랑이심을 계시한다.
   a. 그리스도는 과거에 우리의 구속자이셨고, 현재는 생명 주시는 영이시며, 장래에는 신랑으로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 배필이자 참술람미인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실 것이다 — 아 6:13.
      (아 6:13) "돌아와요, 돌아와요, 술람미여 / 돌아와요, 돌아와요, 우리가 그대를 볼 수 있도록." / "너희는 어찌하여 두 진영의 춤을 보듯 / 술람미를 바라보려 하느냐?"
   b. 주름은 우리의 늙음을 상징하고, 점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상징하며, '그 같은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옛 창조물에 속한 모든 것을 상징한다.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물은 이것들을 씻어 내어 우리를 그분의 변화된 새 창조물 곧 술람미가 되게 한다.
   c. 그분께서 매일 우리에게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되어,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실 수 있게 한다 — "나의 벗들이 당신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 /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 주세요."(아 8:13)
      (아 8:13) "동산들에 거하시는 이여, / 나의 벗들이 당신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 /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 주세요.

V. 시적인 책인 아가의 결론으로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사랑하는 분께 부활 능력(가젤과 젊은 수사슴) 안에서 속히 오셔서 온 땅을 가득 채울 그분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왕국(향기 그윽한 산들)을 세우시기를 기도한다 — 아 8:14, 계 11:15, 단 2:35.

(아 8:14) 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셔서 / 향기 그윽한 산들 위에 있는 /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되어 주세요."

(계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단 2:35) 그러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두 일시에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

A. 주님은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사도 요한의 반응은 주님께 이 말씀을 다시 기도로 읽어 드리면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계 22:20)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마지막 기도이다. 성경 전체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기도로 끝맺는다.
   (계 22:20)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B. 그러한 기도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연인 사이의 혼인의 사랑 안에서의 연결과 교감을 묘사하는데,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연인인 요한의 기도가 성경의 결론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성한 사랑 안에 있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계시해 주는 것과 같다.

C. 사랑의 시인 아가에 따라 사랑의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포이에마' 곧 하나님의 시

가 되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인 누림인 은혜를 가져온다(엡 2:10).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며 삼일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의 궁극적인 술람미 곧 어린양의 아내로서 그분의 영원한 단체적인 표현이 되며 그분과 우리는 영원토록 서로 절대적인 만족과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계 22:21, 19:7, 21:9).

(엡 2:10)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 22:21)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 19:7)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계 21:9)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D. "그분께서 오실 때 믿음은 사실로 바뀌고 찬양은 기도를 대신할 것이다. 사랑은 그늘 없는 온전함으로 완결될 것이고, 우리는 죄 없는 영역에서 그분을 섬길 것이다. 그날은 얼마나 놀라운 날이겠는가!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23권, 노래 중의 노래, 6단락, 174쪽)

© 2026 Living Stream Ministry